朝鮮日報
夕刊 二十二日(木) 本紙朝夕刊十二面

金鶴香油

# 歐洲의危機解消!

## 쳬코政府畢竟屈服 英佛案正式受諾

### 주데텐地方割讓은確定

【프라하二十一日發同盟至急報】 쳬코政府는 二十一日午後 마침내 주데텐地方 分割에 關한 英佛共同解決案을 受諾키로 決定한旨 正式發表하엿다

쳬코政府는 英佛案에 對하야 二十日 事實上拒否와가튼 重大留保를 附한回答을한바 英佛側은 거듭 그飜意를 要請한結果 二十一日早朝 緊急閣議에서 强硬要求를 取消하고 同案을 受諾한것이다

쳬코쳬코政府의 屈服으로 二十二日의 第二次 히틀러 쳄벌린兩巨頭의 會見으로써 주데텐地方의 割讓은 確定되고 全歐洲를 둘러쌋던 重大危機도 解消를 豫想하게되엿다。

【프라하二十一日發同盟】쳬코政府는 마침내주데텐問題에關한 英佛共同解決案을 受諾하기로되여 二十一日 프라하駐箚英佛兩國公使에게 回答文을手交한바 이에關하야 쳬코政府는 二十一日夜 콤뮤니케로써 左와如히公表하엿다

크로프트外相은 今日午後五時 英佛兩國公使와 會見하고 今日早曉二時에 兩公使를通하야 傳達된 英佛兩國政府의 共同提案에對하야 쳬코政府의 回答文을手交하얏다 쳬코政府의 回答文은 지난十九日 쳬코政府에 提示된 英佛共同提案實施에關한 公式手續開始를意味하는것이다

## 英佛案受諾事情說明 國民의自重을要望

### 쳬코宣傳相全國에放送

【프라하二十一日發同盟】쳬코政府는 二十一日 드디어 英佛共同解決案을 受諾함에至한다 바스베카宣傳相은 二十一日夜 라디오를通하야 英佛案을 受諾하지안을수업게된 事情을 說明하고 國民의自重을 要望하엿다 演說要旨는左와如하다

國民諸君은 쳬코建設의父 마사릭크博士의偉業과 쳬코의光輝잇는 歷史를此際 再次 想起하라 政府는 紛爭을 仲裁裁判에附託할것을 要求하엿다가 英佛兩政府의 拒絶을 바덧스며 다시英佛兩國은 戰爭參加에同意할수업는 旨의 意向을表明하게되엿다 政府는 마침내 英佛共同 解決案을 受諾하게되엿다 政府가 領土割讓에 同意하게된것은 英佛의 希望에따라 殺戮行爲를 避하기爲함이다 쳬코는 歐洲全般의平和를爲하야 自己를 犧牲하엿다 쳬코國은 자랑을가지고 新事態에 步를進하고 祖國을爲하야 國土의防守를 굿게하지안흐면안된다 此際 治安攪亂은 쳬코政府의 立場에 莫大한影響이 잇스므로 國民諸君은平靜을 保持하기바란다 베네슈大統領及 호쟈首相以下쳬코政府閣僚는 新情勢下에 잇서서 어데까지라도 그責務를 遂行할決意를굿게하고잇다

## 쳬國內波蘭民族도 均等待遇를要求?

【왈소二十日發同盟】쳬코政府가 英佛案을 容認하엿다는 報道는 二十一日午正왈소에 達하야 各方面에 衝動을 주고잇다 왈소政界에서는 英佛案이 波蘭少數民族에게도 適用될는지 어떨는지問題로되여잇는데 이에關하야 政府는 말하기를

波蘭政府는 關係國에 對하야 쳬코國內 少數民族의 均等待遇를 要求코 注意를喚起하고잇다 그러나 이는 英佛에要請할것은 아니다 波蘭은 今日自己問題는 自身이 處理할大國이며 二十年來我國當然의權利主張이다

## 쳄벌린英首相 今日獨逸로向發

【倫敦二十一日發同盟】쳄벌린首相은 二十一日夜待望의英佛解決案受諾의 回答을쳬코政府로부터接受하얏스므로 同回答案을 携帶하고 明二十二日午前十時 倫敦郊外의 헤스톤飛行場을出發 케른經由로 라인河畔의 고데스베르히에 赴하야 히틀러總統과 第二次會談을 開始하기로되엿다 쳄벌린首相은 今回의訪獨에는 윌손外交顧問 말킨法律顧問 스트랑그外務省中歐局長外十名의 大隨員團을 帶同할作定이다 今回의 隨員團에 參加하는말킨法律顧問은 벨사유條約締結에際하야 中歐諸國의 國境畫定에 參加한 經驗이잇는 專門家로쳄벌린首相은 同氏를 帶同하고잇는點으로 보아 히틀러 總統과의 第二次會談에 잇서서 쳬코問題解決의 最終案의 起草에까지 到達하려는 意向을 가지고 잇는듯하다

## 近近國會를召集코 國民의支持를要求

【프라하二十一日發同盟】쳬코政府는 英佛共同解決案의 締結을報告하고 國民의支持를要求하고저 近近 國會를召集키로 決定하고 二十一日夜 라디오를通하야 此旨를 公表하엿다

## 쳬코問題에關해 英政府閣議開催

【倫敦二十一日發同盟】英國政府는 二十一日午前의 首腦部會談에 繼續하야 午後二時부터 閣議를開催 前後二時間에 亘하야 쳬코政府의 態度及히틀러 쳄벌린第二次會談에對한 具體案을 審議하고 午後五時散會하엿다 쳄벌린首相은 다시 勞働黨代表애틀리少佐 及 그린우드副領袖와會見 政府의 態度를 說明 諒解를求하고 호어벨샤陸相과 協議를終了한後 바킹감宮殿에 伺候 조지六世陛下에 最近의 情勢에關하야 詳細를奏上하엿다

## 宇垣外相參內

【東京電話同盟】政府는 二十一日閣議에서 國際聯盟規約第十七條第一項援用에依한 勸誘狀에對하야 拒否回答文을 發送키로決定하엿스므로 宇垣外相은 二十二日午前十時宮中에參內 天皇陛下께拜謁한後 國際聯盟의態度와 此에對한 帝國政府의拒絶回答決定에이르기까지의 經過를 委曲奏上하고 여러가지 御下問에 奉答한後 御前을 退下하얏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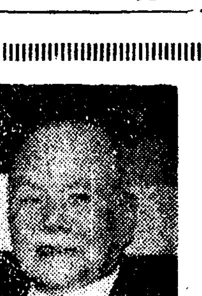
## 瀧企畫院總裁首相訪問

【東京電話同盟】瀧企畫院總裁는 二十二日午前十時 荻窪의 別邸에 首相을訪問 官吏制度改革問題其他에 關하야 要談하엿다

# 事變의公正解決 聯盟規約으론不能

## 聯盟勸誘와帝國回答內容

【東京電話同盟】宇垣外相은 二十二日午前十時宮中에 參內 二十一日 閣議에서 承認을 得한 聯盟規約第十七條에 基한 聯盟勸告狀에 對한 帝國政府의 回答案을 上聞에奏達하고 直時聯盟事務總長 앞놀氏에 對하야 右回答手續을 取하엿는바 同日正午 如左히 發表하엿다



聯盟規約第十七條에基한 國際聯盟理事會의 招請狀에 對한 帝國政府의回答(外務省情報部)

一九三八年九月十九日附貴電으로써 通達한 國際聯盟理事會의 帝國政府에 對한 規約第十七條第一項에 基한 招請을 接受하엿다 帝國政府는 國際聯盟規約의 豫見이잇는것가튼 方法으로서는 今次支那事變의 公正妥當한 解決을 볼수업슴것을 굿게밋는바로서 右帝國政府의 方針은 縷縷 이를 밝혓든바로 今回理事會招請도 亦是 右의理由에따라 遺憾이지마는 이를 受理할수업슴을 回答하는 光榮을 有함

昭和十三年九月二十二日

日本帝國外務大臣 宇垣一成

國際聯盟事務總長 앞놀 殿

(寫眞은 宇垣外相)

## 日本의拒否를 各國代表部도豫期

【주네브廿一日發同盟】日本政府의 聯盟理事會 招聘拒否에 關하여서는 아직新聞報道만으로公報에는 接하지아녓스나 各國代表部는 이것으로써 豫期하엿든結果라고하야 格別히 驚愕을示하지도안는다 聯盟規約에依하면 聯盟國이 規約第十七條를 拒否한때에는 十六條를 適用하기로되어잇스나 現在의 情勢로서는 聯盟國의 對日共同行動等은全然想像할수업스며 理事會가 何等의 行動을 取한다고하여도 再次 聯盟國에 對하야 個別的對日援助를 勸告하는程度에 끄칠것으로 따라서 今回의 支那代表의 第十七條適用提訴는 單只精神的効果를 거둠뿐으로 簡單히 處置되여 버리리라고 보는것이 一般의觀測이다

# 行動으로서出發 實踐으로서具現

## 國民精神總動員聯盟協議會南總督告辭

二十二日午前九時總督府第一會議室에서 會合한國民精神總動員聯盟協議會席上에서 南總督은 다음과가튼 告示가잇섯다

本日玆에 國民精神總動員聯盟의 會同된 機會에 本運動에關하야 所懷의 一端을述함에 各位의 時局下各位의 御盡力에 對하야 기괴 感謝의意를表하는바이다

惶懼하옵게도 皇室에서는 가괴銃後에 聖念을 드리우사 여러가지 御仁慈를 내리옵심은 진實로感激에 不堪하는바로我等官民은 더욱一致結束 奉公의誠을竭하야 遺憾이업기를 期하는바이다

支那事變勃發以來 벌써 一年二個月餘를 經過하야 漢口陷落도 亦 目睫間에 다다랏스나 此間 御稜威下에 我忠勇한 皇軍은 到處赫赫한 戰果를거두어 國威를 世界에 宣揚하고잇는 偉大한功勞에 對하야 各位와함께 深厚한感謝를 드리고 兼하야 一死君國에殉한 戰歿將兵英靈에 對하야 敬虔히 敬弔의意를 表하는바이다

現下 我國의 直面한 時局이 如何히 重大한가는 다시 말할것도업시 國防、外交、產業、經濟、敎育等各般에 亘하야 整備充實을 期해야만될것으로 그根柢가 되는것은 皇國精神으로 國民的 一大結束이 잇서야될을 確信한다 이때문에 國體觀念을 明徵하야 此를日常生活上에 具現하고 더욱그昂揚을圖함에는 國民精神總動員聯盟의 重任에應한 各位의 努力을크게 밋고잇다

帝國의使命인 東洋平和建設의途는 먼저我皇國의 理想인 八紘一宇의 大精神을 東亞民族間에布하야 『東洋은 東洋人의손으로』라는 信念下에 東洋全民衆이 日本을中心으로 和協一致、굿게握手하야 共存共榮의 實을擧함에잇다고잇는다 幸히時局下의 我半島는 官民相携 時艱克服에 邁進한結果 同胞의 國民意識은益益然、全鮮에强하고 銃後의守護、더욱구더저 잘皇國臣民된 責務를 다하고잇슴은 同慶에不堪하는바이다

事變發生同時 總督府에서는一般民衆에게 時局에對한 的確한認識을與하야 그覺悟를鞏固케하기爲한 各種施設을 講究하엿스나 其中最重한者 國民精神總動員運動이다 本運動은 此를 反復實施하야 皇國精神顯揚、內鮮一體完成、生業報國에邁進、農山漁村振興、經濟政策과協力、生活革新、勤勞報國隊結成等 擧國一致의 態勢를整備함에 努力해왓다 다시 그效果가擧러 國民精神總動員聯盟의結成이되고 內鮮一體國家大理想顯現에 向하야 勇往邁進하게되엿다 無論事變의 恒久化에伴한 本運動의趣旨를 一層徹底케할必要가 더욱緊切함을痛感하는同時 今後精神總動員運動은 널리 國民間에 自主的純一精神으로團結하는 集團的行動訓練으로서 本體로하야 强力인聯絡統制를圖하야 國家意思를遂行할것이다 (中略)

國民精神總動員은 即日本精神의 總動員이다 日本精神을마음보다도 行動에서出發、實踐에依하야 具現될것이다 又國民精神總動員은 國民全般精神運動으로一政府一官廳一部民間의 일이아니요 全國民間에 澎湃하야 官民一致 內鮮一體의 大國民運動이야만될것이다 各位는 以上趣旨를諒得하야 本運動의 具體的實施計畫을 樹立實行함에 當하야 半島實情에即應하는最有効適切한 方策으로 本運動에有終의美를거두어 遺漏업기를바란다

昭和十三年九月二十二日 朝鮮總督 南次郎 (寫眞은 南總督)

## 軍司令官祝辭

思惟컨대 征戰은 一年有餘 只今엔 旭旗가翩飜히支那要城에飜하고 皇軍이가는곳에 敵兵은潰走하며 武漢의要害도한 近日中에攻略될것으로 蔣政權의 覆滅은不遠한將來에잇슴을豫想케한다 然이나 支那大陸을 基調로하는物質的欲望에 纏綿한 列國의 蔣政權支援의 陋策은益益 積極露骨化하야 自己野望達成에 猪突하고잇서서 事變의前途는 尙今豫斷을不許한다 加之歐洲의 情勢는 暗雲이掩蔽하여 國際政局의動向은 逆睹키難하야 眞實로 堅忍持久 擧國奮起의 秋라고생각한다

그러고 客月我朝鮮半島에잇서서는 各種團體及個人이 期約하지안코 相共蹶起하야 本聯盟을結成하고 眞正東亞의 悠久的建設에 即應할 堅確한 態勢를整頓、物心兩面에亘하야 精進恪勵하므로써 聖業의 翼贊에邁進하바잇다 今日玆에 第一回協議會를 開催하고 確乎不動의 綱領下에 大旗를 樹立하게된것은 참으로 時宜를 得한것이라고 할것이다 本職은 本聯盟이 我國體의 本義에 立脚하고 皇道精神에 徹底한不動的信念을 培養하야 愈益結束을 鞏固히하야 時艱을 克服코 半島精神運動에一轉機를 劃하야써 聖業目的達成에 貢獻하는바 크기를期하는바이다 一言所懷를述하야 祝辭로함

昭和十三年九月二十二日 朝鮮軍司令官 中村孝太郎

# 信陽前衛重要堅壘 羅山縣城遂占領

## 敵의大別山作戰에致命的打擊

### 今後는京漢線서決戰

【○○二十一日發同盟】我○○部隊는 二十一日午後七時三十分羅山南門의 揭秀門에 突入 이어主力은 午後十時入城 全城을我占領에 歸하엿다

【○○二十二日發同盟】羅山으로부터 信陽까지의餘路는 겨우二十四粁로羅山陷落이 信陽에集結한 敵大部隊에 一大衝擊을與한것은 想像키어렵지안타 다시同地는 北方으로 正陽을經하야京漢要地確山에 或은淮河北岸의 息縣에通하고 南으로는 大別山系를넘어 黃安을經하야 武漢에 通하고잇는바 이堅陣要衝을 我軍에攻略當한것은 敵에對하야致命的打擊이라고 할수잇다 如斯히하야破竹之勢인 大別山作戰部隊는 八月下旬行動을 開始한後 六安 霍山 固始 葉家集 商城 光州 光山 沙窩 新店의順으로 文字그대로 朝에一城 夕에一塞를拔하는快進擊을示하면서 怒濤와가티進擊現在까지 겨우남아잇는 羅山까지 掌握한바되어 이에大別山麓地域의重要陣地據點은 全部陷落하야 敵의依賴하는 大別山脈의外廓線은 完全히崩潰하게되엿다 따라서 大別山作戰의前半은 이로써 我軍의 赫赫한武勳에 終了한바로 今後大別山線 後半戰에 入하야 京漢線南段方面을 舞臺로 武漢三鎭의死命을 制壓하는 決戰的 戰鬪가開始될것이다

## 百疊山敵과交戰

【周家口二十一日發同盟】陽新을眼下에 俯瞰하면서 進擊을 繼續하는 麻城 寺崎部隊等의 諸部隊는 二十一日午前 洪家寨、木可家를 陷落시키고 同日夕陽에는 陳家嶺을占領 이어 小堀部隊와 協力下에 百疊山의 敵과交戰中이다

## 八面鋒

◇弗賀事件이 爲替管理法 違反이라하야 檢擧取調中。

◇人智가 發達하면 犯罪도 發達、經濟警察이 생기는것도 當然。

◇그러나 어느點이 氣利나 어느點에 正札이냐하면 判斷키 極難。

◇人權을 蹂躪치 안코 取締를公正히 하랴면 若干한 受苦가 아닐듯。

◇이곳 法의 運用을 適當히 해야할 所以。

◇쳬코問題는 그러저럭 解決이 되는모양이나 쳬코의 於心엔 不平이 瀰瀰。

◇佛國의 援助도 不確實、蘇聯의 向背도 確信難。

◇弱少國의 밧는 制約이라할가。

◇못늘리니伊首相 新로마進軍을提唱。

◇恒常 戰鬪意識을 强調하라는 軍國英雄의 意圖。

# 百疊山、壢頭尖에進出 陽新陷落도迫頭

【宋家冲二十一日發同盟】江南揚子江으로부터 湖北省에 進擊한 平田部隊는 二十一日午前四時半黃土橋크리크를 敵前渡河 抵抗하는 敵을 追及 四十里餘를 突破하야 同夕陽에는 벌써百疊山의 線에 進出하고 陽新에肉薄하엿다 陽新까지는 今後겨우數里로 陽新의 陷落은 時間問題이다

【宋家冲二十一日發同盟】黃土橋크리크를 끼우고 雨中의 三日間을 敵과 相對峙하고잇는 中에 我○○部隊는 戰備를 整頓 二十一日未明을 期하야 進擊을 開始하엿다 雨雲이低飛하고 咫尺을 不辨하는 曉暗을利用하야 平田部隊의 先鋒은 午前四時半 크리크를 强行渡河 하야 敵陣에 突入 맹렬히 잇게 敵第一線을 突破하엿다 馬頭鎭占領以來 戰意를 喪失한 敵은 또다시 我軍의 不意의攻擊을바더 周章狼狽 抵抗의 氣力도업시 退却하기始作하엿다 敵에動搖의빗이 잇다고看取한 平田 井 中島 長屋 福田等의 各部隊는 間髮을 두지안코 猛追擊에 올마 무릅을 埋沒하는 泥濘의 本道를 不拘하고 敢然하는 敵에 砲射를퍼부면서 夕刻까지에 十二時間餘의 追擊을 繼續、黃土橋로부터 四里餘를突破하고 百疊山 壢頭尖의 線에 進出하엿다 街道上에는 敵의死體가 累累 散在하고 野砲一門과多數兵器를 鹵獲한바 地雷鐵條網等을 到處에 遺棄하야 敵이如何히 狼狽逃走한가를 如實히 보이고잇다

## 時事解說

### 漢口戰後의南支據點

漢口陷落은至今엔 全혀時間問題에 不過하다고 보는것이 一般의 常識이 된거와 마찬가지로 漢口攻落으로써『作戰』이 結末을 짓는것이 아니라는것도 또한 한個의 常識으로되여잇다。

◇『焦土抗戰』을 絶叫하는 蔣政權의 末期作戰이 오히려 一層激烈한 反擊力을 發揮할것을 豫想하고잇다。그리고 蔣政權은 今後四川省成都로 遷入하며 重慶、貴州를 通하야 英佛에、西北新疆 甘肅을 通하야 蘇聯의 援助를 어더 中央軍主力을 湖南에두고 第八路軍을 策應케하여 全面的 游擊戰을 展開할것도 想像키에 어렵지안타。

◇漢口戰後 抗日勢力이 西北、西南兩地로 分散됨에잇서 가장 注目되는것은 廣西、雲南兩省의 地位와 그것이 가지는바 極東政局上의 價値다。今日極東에 脅威를주고잇는것은 北方에 蘇聯의 軍事力과 南方에 新嘉坡의 英海軍力이라할수잇다。이新嘉坡에 主力艦隊를 集結하고 佛國 或은 米海軍이 共同作戰을 取할境遇 그戰力은 決코無視할수업는것이다。더욱新嘉坡는 印度를防衛하며 濠洲를保全함에 唯一한根據地인은 勿論이며 印度의防衛線은 海上뿐만아니라 支那와의國境即 雲南、西藏으로부터 脅威를 밧게될도또한 極히 重大한것이다。이方面의脅威가 增大됨에따라 新嘉坡의 存在價値가 半減될도事實인바 이런意味에서 廣西、雲南은勿論 廣東과海南島가 重大한 地位를차지하게된다。

◇今後蔣政權이 西南地方特히 南支에抗日據點을 두게되는以上 南支各地를 制壓하지안흘수업는것이니 그結果新嘉坡의 軍事的價値는自然半減될運命에 잇게되는바 그것은 何如間 英佛의暗中工作이 今後四川의抗日政權에對하야 繼續되는限 그聯絡을 遮斷키爲하여서나 또는 主로에依한 制壓을効果잇게하기에는 반드시 廣東、欽州地方과 海南島를 今後의攻擊據點으로 獲得 할것이며하지안하서는 안될것이다。

## 政務總監 忠北、慶北視察日程

大野政務總監은 忠北、慶北一帶와 內外金剛을視察하기爲하야 來二十五日午前十時四十五分 京城驛發列車로 天谷秘書官、松園警務課長을帶同하고 一路忠北淸州郡水安堡溫泉을向하야 出發할豫定인데 그日程은 左와如하다 그리고 外金剛에서부터는 井坂文書課長도 隨行할터이다

大野政務總監視察日程

九月廿五日 京城發 烏致院 水安堡 水安堡(泊)廿六日 水安堡發 丹陽 榮州 金井 金井(泊)廿七日 金井發 鷄山村 三陟 三陟(泊)廿八日 三陟發 襄陽 外金剛 溫井里(泊)廿九日 外金剛發 毘盧峰 久米山莊(泊)三十日 毘盧峰發 內金剛 車中(泊)十月一日 鐵原發 京城着

## 木石港陷落切迫

【九江二十一日發同盟】江南、湖北省境을 進擊의急先鋒 中村部隊는 二十一日午前十一時半 芙女山堡壘를突破한後 進擊하야 獅子岩黃金塊에肉薄、太田部隊와 協力하야 南北으로부터 敵을 壓迫하고 同日午後獅子岩陣地를 占領 木石港을 指呼間에 바라보며 士氣旺盛한바 木石港陷落도 目睫에 切迫되엿다

## 辭令

總督府稅務監督局事務官 川上親豊
任總督府稅務監督局副事務官(七等) 命咸興稅務監督局在勤
總督府稅務監督局副事務官 田中文彥
依願免本官


# 분단장을안코라도 늘어엽뿌게되시는법

## 가정에서 간단히 살결 본바탕부터 곱고 히게 만드는법이 발명되엿다

사람의 인정(人情)으로 어여뿐것을 조와하며 따르는것은 하는수업스나 누구를 물론하고 자기만이가지고잇는 어여뿐 개성의미(個性의美)를 이즈시고 남이한다고 기른 회장을 따려하시나 결국 것치장에 지나지못하며 더구나 요새에는 회장이잘 올三어서 보기띠한 얼굴로 되시고말것이ㅂ다 또한 피부의 신진대사기능이 왕성하는 젊은이인만큼 얼굴피부의 영양과대사기능이 충분치못할때에는 얼굴에 잔티가생기며 여드름이돗고 기름끼가 흐르며 햇빗에몹시끌게되야 흉한얼골로 되고마는만큼 특히사기의얼굴에 대한 조섭에 주의하서야됩니다。

그러면 어떠케하여야 조흐냐하면 여러분이 갓나섯슬때에 가젓든복숭아와가티 어여뿌며 히고 부드러운 살결로 도로회복식히시면 됩니다。즉 대리석가티 潔白하고 윤택나는살결로 앵도와가튼 붉은 뺨、샛별가튼 눈 매력잇는 눈가치성숙된 복숭아열매처럼 千古의 麗淑을품고잇스나 손나면 열리는 입술에 빨갓이 더워지는우숨을 늘 가지서야하실 여러분께서는 겉치장밧게 되지안는 재래의 화장품에서 대담히 해방되시사 살결을 근본적으로 곱고 히게만드는치료를 하여주십시요

최근 구미각국의 영화계와 사교계를 물론하고 우리동양의 녀성에게서 절찬적 환영을 밧고잇는 신가정미안료법은 酒性고로이도 硫黃保有의『레오洗顏크림』으로 치료하는법입니다。

『레오洗顏크림』료법은 藥用이될뿐만아니라 화장대신이됨으로 더욱 환영을밧게되나니 살결을 본바탕부터 히고 어여뿌게만들어주며 홍도빗도는 어린애살결가티 만들어주는까닭입니다

## 뚜렷한體驗記

### 놀낼만치살결이히여지고 빗발가티내리는婚談

(木浦) 羅仁愛

拜啓 먼저 貴社日進月加의進榮을 仰祝하나이다

돌연이런 글월을쓰게된것만도 다만 깁붐에 못이기여 書面으로나마 치하의말슴을 엿숩고저 失禮를 冀諭하고 붓을들엇나이다 저는 昨年三月에 女學校를 卒業한 二十歲되는 녀자이올시다 그當時는 얼굴에는 別로마음에도 두지안이하고 잇섯습니다다만 요새와서는 여러 동무들이 점점 어엽버지고 저는갓슬때부터 脂肪性이엇고 얼굴이 검어서 父母님께서 까지도『저애는 엇재서 저럿케까지도 빗치검은고 다 다른애들은 모다얼골이 힌데』이런말슴을 들을때마다 저의가슴은 애달픔에못이겨울곤하엿습니다

그럴지음에 어느雜誌에서 貴社의레오세안크림이 매우조타는 記事를 拜見하옵고 곳사다가約一個月쯤써왓는데 요새와서는아주 딴사람가티 살결이연해지고 얼골빗치히여져서 깁붐의날을보내고잇사온데 거기다近日에는婚談까지 遝出하야 一重의 幸福을 한거번에어더스니 이다 레오세안크림의 恩德이라고 感謝의念을 難禁이로소이다

### 큰걱정이든 粉때가버서저

(馬山) 李先英

【馬山】일즉이 이職場에나와 여러동무들에서 복개이다가幸인지不幸인지 엇던분의참스러운結婚申込을바더 家庭生活에 드러가게되엿습니다 그러나는難關은 前生活에서어든 얼굴의不自然美粉때 연녹으로검푸레하야 더우독검게 분을바르게되고 점점더본바탕은 망처저 家庭에드러간다면 여간 큰문제가아닙니다 그래우묘법 紹介에는조타는方法은 다해보앗스나 조곰도효과를못보든 겟습니다 안제는단념할수박게업구나 하엿슬때 新聞紙上에서신가정미안법이란것을보고 레오세안크림을써보앗습니다 이것여저 불구원해주엇습니다 다시금 젊음과 美를차저가지고 幸福히家庭에 드러가게되엿습니다 이後로만히 지도해주심을바라면서 붓을놋습니다

### 藥으로 살이버서진 죽은깨가사러젓다

(京城) 鄭淑景

자녀가 두셋이나되고 三十의 고개를 훨신넘엇스니 무어얼굴을 의잡되 잔주름이야하고 그대로 두엇드니 인제는 죽은깨가 몹시 만히나서 남편보기에 붓그러워졋습니다

이약저화장품하고사서 발르고 문질느고하야 살이버서질노롯이나 조금도 업서지기커녕 더 흉한얼굴이 되것갓습니다 中略어느날남편어 化粧品가튼상자를들고드러오며 아무말업시주고갑니다 무언가하고보니 이것이 즉 레오세안크림입니다

써잇는사용법대로 매칠쓰고보니 놀날만치 얼굴이달러저지금은 아조젊머슬때의 살파빗이되엿습니다 남편도자기자랑이라여간기버해주지안슴니다 한가지감사하는바입니다

## 하로에 두번 三四分치료면된다

『레오洗顏크림』은 하로 두번세수하시는사이에 치료하시면되나니 공약만큼의크림을더운물로 버물이르켜 이것을 얼굴에 문질느며 맛사-지를하시면 고로이도硫黃의 科學的作用으로 피부色素의漂白作用과 新陳代謝기능 또한피부면의殺菌作用으로 거무빗갈과 기미 여드름 죽은깨 잔티가업서지며 고로이도硫黃에가합된 特殊潔白榮養料는 살오루몬을피부조직에 수입하야 살결의주름이 업서지고 눈섭은짧하게되며 입술은 산호빗이불도게됩니다

어여뻐지실 여러분께서는조금도 주저마시고 레오洗顏크림으로 치료하여주시사 남과가튼 건강미에 넘치는 행복을 어더주십시요

정가는 普通瓶(약한달분)一圓四十錢 德用瓶 三圓四十錢 이오며 전도 유명한 百貨店 약방 화장품점에서 판매하고잇습니다마는 매절된때에는송료二十錢을 선송하시는분께남어지송료를부담하고 대금인환으로도 송아해드립니다

東京市神田區小川町西二丁目 株式會社 レオン商會 (振替東京八八一番)

어느분의게도 좋지하시는대로조선문으로쓴『新家庭美顏療法』이라는 책을거저드립니다



青春座公演 九月二十二日밤부터

崔獨鵑 飜案 椿姬 四幕

南宮春 作 愛情公債 一幕

次週斷然上演

東洋劇場

李雲芳 作 우도러우……도러우 三幕五場

青春座 府民館公演 十一月一•二•三日(晝間三回 夜二回) 午後一時 午後七時

崔獨鵑 脚色 春香傳 五幕八場

無比의配役! 完璧된脚色! 絢爛한裝置!

特別奉仕料金 50錢均一

乞期待!!

府民館

# 國民精神總動員·具體的實踐에!

## 有機的組織遂完成 今日代表者初會議

### 九大綱領을上程可決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이 조선민중의 지성으로 우러나는애국의 열성으로 조직된이래 그기반연맹이 방방곡곡에서 조직되어 각도연맹을 비롯하야 애국반(愛國班)에 이르기까지 그유기적 조직이 마치내 완성되고 오늘드디어각대표자의 첫회의가 총독부 회의실에서 열렷다 이것이 바로 전선(戰線)에서는한구공략(漢口攻略)을 압두고잇스는데에 총후국민은 그정신운동의 실천공헌에 진충하라는것으로서 아침아홉시 기념할첫회의는 막을 열엇다.

여기는 각도 연맹대표, 군사후원연맹 시국대책조사위원, 사상보국연맹원등 단체 개인들등트러 지도적 인물이 망라되고 총독부각국과장등 모두일백오십여명이엿다

개회에압서 일동은 항거에요배하고 엄장한 남총독(南總督)으로부터 연맹의사명을 강조하는 고사(告辭)가잇고 대야총재(大野總裁)의 훈시가잇슨뒤 내무총장(中村)군사령관의 축사가잇섯다 뒤이어연맹의 선언을낭독하고 다시연맹의 실천사항의구체적활동요소로서의 아홉가지 강령을 발표하야 만장일치로가결하엿다. 그다음 협의에 드러가서 총독부 각국과에서 제출된 사항에 대하야 타합을하엿다 회의는 오후에도 계속하엿더로 아므로 연맹의 나아갈길에 대하야 그구체적사항을 드러서 각기 성의잇는 의견의진술이 잇슬터이며 이로부터 민중의중요로 뭐어드러가(사회로)록 금후의 활동방침대강을 결정하게될터이다(사진은회의광경)

### 九大實行綱領

一、皇國精神의顯揚
一、內鮮一體의完成
一、生活의革新
一、戰時經濟政策에의協力
一、勤勞報國
一、生業報國
一、銃後의後援
一、防共防諜
一、實踐網의組織及指導의徹底

# 私學振興을協議

## 當局의方針과希望을提示 今日京畿私校長會議

경기도 학무과에서는 이십이일 오전아홉시 도청제일회의실에서 도내 각사립중등학교 교장 삼십팔명을 모하노코 사학진흥(私學振興)에 관한 타합회를열고 사학진흥의 문제를 중심으로 학교조과의 기탄업는의견의 교환을 행하엿다

사학의 제는 특히 빈약한 조선의 교육계로서는 중대한 문제여서 현재조선전체에 사립중등학교가 얼마나잇는냐하면 칠십구교에 오백육십오학교 생도수가 이만팔천여명 교원수가 일천이백사십구명이나되고 그중에서도 반이상은 경기도에 집중되여잇서 경기도에잇는것이 삼십팔교 삼백삼십일학급 생도수 일만칠천팔백명 선생수 칠백오십구명이나된다 더구나 현재도내에 관공립의 중등교육기관이라고는 부족하기 그지업서 사립의 삼십팔교에 대해서 겨우 이십일교박게는 못되고잇는 현상이므로 교육진흥상으로나 입학난완화를 도모하는 의미에서나 사학의 진흥은 소홀히 넘겨버릴 성질의 문제가 아니므로 이번타합회석상에서도 여러가지문의론이잇섯는데 도당국으로서도 이기회에 도로서의근본방침을설명하고 특히학교경영의 경제적기초확립 교원의 대우개선 소질향상 학교관청간의 일층긴밀한연락등등 여러가지의희망조목을 제시하고 각사립학교측의 협력을구하여 회의는만흔 수회을 거두엇다한다

# 弗貨潜買事件擴大

## 支那人十四名引致

### 仁川署事件의取調中에端緖어더서 京畿警察部가活動開始

불화잠매(弗貨潛買)의혐의로드디어세상에드러나게된경성시내모대한약방주(藥房主)소아무개고도는위체관리법위반사건이 인천서(仁川署)를 중심으로 날로더버러저가고잇는이때 이십일일 돌연히내종로삼정목에 터잡고잇는 공모(孔某)상 모씨의사용점원 지나인삼사명이 경기도경찰부에 검속되여 철야취조를 밧고잇서 수목을끄을고잇다 사건은 취조가 끗난후가아니면 인천사건과의 관련의 유무는 판단키 어려우나 이들은 지난 일월께부터 사변관계로 원(圓) 시세가 떠러젓고 더구나 상해(上海)방면에선 최근 원의 공급과다로 향항에 비해 시세가크게차이가 난것을 틈타고 서로가 어울려서 거액의 채금(借金)까지 내가지고 몰래지나로보내여온사실이 탄로된듯하다는데 현재판명된것만도 모두가 수십차례에 삼만여원에달한다고한다

# 送金經緯를追窮

## 仁川署外銀代理店主任을召喚

【仁川支局電話】경성시내 모한약방을 중심으로한 딸라잠매사건은 인천서에서 계속추궁중인데사건은 단순한 딸라잠매만이 아닌듯하며 지나인을 둘러싸고 일대밀수사건이 드러나지안는가 주목되고잇다 이십일인천서에서는 외국은행 대리점인 파우센트상회 송금계주임중촌모(中村某)를 소환하는동시에 송금대장을 압수하여다 노코엄밀한 취조를 개시하엿다 일방 모약방 사업부주임인 지나인을 불너 내다 노코 작년팔월 이래 이들이 주인의명의 또는 지나인의 명의로 송금해온것을 가려내는 동시에 일반다른 사람의 송금관계에 대하야 중촌모를 계속취조중이다 그런데 외국송금은 반드시송금인의 도장을 찍는규정임에 불구하고 도장찍지아니한 송금신청서를 가추고 여기 송금인서가 여러잇서서 이점을 추궁하고잇는데 사건전은 이제부터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는것이아닌가 주목되는바이다

# 在京中國人

## 新支那統一祝賀

새지나통일의 주춧돌인 중화민국정부 련합위원회 성립식을 거행하는 이십이일 서울에잇는중국인은 이성의(盛儀)를 축하하고저 아침여듧시반 범(汎)총영사와 주(周)총상회장이하 관민다수가 총령사관소화교안에 모히여 식을거행하엿다 어자리에서 범총영사는 련합위원회성립의 의의를 설명하고 북지임시, 중지유신 두정부의 합류가 일만지 친선의 기초이며 동양평화를 확립하는것이라 강조하고 소학생까지 소리를 합하야 지나통일만세를 노피불럿다

# 白衣勇士

## 今日京城에

산서남부(山西南部)전선에서혁

# 樂器專門盜

지난삼월이래 시내 각악기점을전문으로 횡행하던대적이 용산서원에게 체포되엿다 이십일 오전네시경에 용산서원이 부내 공덕정(孔德町)사칠번지아플 순행할지음 거동이 수상한자가 지나가므로 본서로인치하고 취조한결과 이는 본적을 시흥군 동면구로리(始興郡東面九老里)에 두고 주소가일정치안흔 심천택(沈千澤)(二七)으로 지난삼월칠일경에 종로(鍾路)삼정목 칠십팔번지 십자당악기점(十字堂樂器店)에서 축음기 기타악기수십점을 절취한것을비롯하야 낙원정(樂園町)일백이십번지 한모(韓某)에집 기타여러곳에서 이십여회에 궁하야 악기를 전문으로 절취한사실을 자백하엿는데 피해액수는 삼천여원에 달한다고한다

# 三百社員의犯行은 社長重役의使嗾

## 졸개社員은大槪微罪로고칠뜻

### 中央無盡의犯罪全貌

누보=십칠년동안 신어부출로 삼백여명졸개가 사장중역 또는 간부급인물의 지시로 유만여명에게서 오십여만원을 사기취재하야온 중앙무진(中央無盡)의부정사건은 그간 십여일을두고 본정서사법계원의 총동원하에 차례차례로 백일하에 폭로되고잇는데 현재 그서에검거된인물은 기보한바와가티 지전(池田)사장 정택(鄭澤)전무 오(奥)상무취체역외에 십여명·중요간부가 포함되여잇스나 취조가 진행됨에따라 이들 수백명의 범죄자를 내게한것은 전혀 지전, 정택, 오, 세사람의 책임으로 외교원 사무원등 대다수는 사장중역에게서직접 혹은간접으로 교사를바든것이라고한다 또한평사원들의범죄이면에는 어쩔수업시 상부의명령에 복종한 것과개인적으로볼때에는 미죄에 속하는것이만허 결국기소의견으로 송국될것은 전기세사람 최고간부외에는 별로업슬것갓다고하며 따라서 이사건의반향은진 가입자의 안정을도모하기위하야서라도 속히결말을지울모양이다

# 交通事故의犧牲

## 上半期死傷千六百名

금년일월부터 유월까지 상반기 반년동안의 교통사고총수는 일천육백오십일건인데 이중에 사망자가 이백팔십오명 부상자가 일천이백칠십칠명이다 이것을 각교통기관종류별로보면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가 가장 다수에 달하야 그건수가 일천이백건, 사망자가 일백삼십이명 부상자가 일천사십명으로 건수에 잇서서도 칠할이분 사상자에잇서서는 사할육분 부상자에 잇서서는 팔할일분에 달한다 그리고 철도에의한사고는 이백구십사건으로 사망자가 일백사십삼명 부상자가 일백사명이오 전차에의한 사고는 일백오십육건으로 사망자가십명 부상자가 일백삼십이명이다 비행기에 의한 사고는 단한건으로 사상자는업는데 작년도 동기에비하야 큰 차이가 업는현상이다

# 運輸規則을改正

## 北京直通列車運轉에따라서

오는 시월일일부터 부산북경사이에 직통급행열차를 운전하기로 되엿스므로 철도국에서는 이십일일에 려객및 수소하물(手小荷物)의 취급에 관한 려객운수규측을 제정발표하엿다 그가운데서 중요한 점을 들면 이러하다

▲려객관계=연락차표의 취급역은 조선철도국선은 부산 경성 평양역을 비롯하야 주요역 삼십개소이며 만철북지사무국선(滿鐵北支事務局線)은 경산선(京山線)의 당산(唐山) 천진(天津) 정양문=북경(正陽門=北京)의삼역이다

그러고 차표는 개인이나 단체나 모두 외쪽및 왕복표를 팔며 경로는 안동(安東) 또는수성(輸城) 산해관(山海關) 경유로 되엿고 회유(廻遊)는 출발역으로부터 만철선 복지천 대련기선항로(大連汽船航路)로되여잇다 차표통용기한은 외쪽은한달 왕복또는 회유는 두달이며 왕복여객에게는 운임을 이할인하기로되고 단체려객에게는 내지나만주에 가는 단체려객과 마찬가지로 만호할인을하기로 되여잇다 차비는 삼등왕복으로

▲경성북경 사이에 사십일원오십사전
▲경성천진사이에 삼십팔원십사전
▲부산북경사이에 오십이원칠십전
▲부산천진 사이에 사십구원삼십전이다

또부산 북경사이의 즉통삼등급행료금은
▲오백키로까지 칠십오전
▲팔백키로까지일원
▲일천삼백키로까지 일원이십오전
▲일천팔백키로까지일원오십전
▲일천팔백키로이상 일원칠십오전이다

▲수소하물관계=수하물과 소하물(小荷物)의직통취급을하기로 되엿는데 수하물 무임운송량(無賃運送量)은 삼등은사십키로 이등은 륙십키로 일등은 팔십키로이다 소하물로서 수탁(受託)하는것은 동상소하물 귀중품신문지 잡지 식료품등 으로하고 소하물에 대해서는 대금이환의 취급을하기로되엿다

# 技術卒業者使用

## 今月末까지申請하라

지나사변이 장기화함과 국제정세가 용이치아니함에 비추어 공업광업방면의 생산력 확충그중에도 특히군수(軍需)관계의공업광업생산력 확충은 실로 긴급을 요하는문제로서 그생산력 확충함에 인적(人的)요소이기술자를 필요방면에 돌려서 가장 효과적이며 능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자 총독부에서는 지난 팔월부터 학교졸업자 (명춘공업방면학교 졸업자)사용제한령을 발표하야 그날부터실시하는중으로 오는말일까지 그사용사의 사용인가를 마감하기로되엇는데 만일 사용인가 신청기일인 오는삼십일이 경과하여도 그신청이업는 경우에는 명년도에도 이들학교졸업자들을 사용하고자하야도 사용할수업는 규정으로되어잇스므로 관계방면에서는 특히주의할필요가잇다

唐麵 製造都賣 釜山豆麵工場配給所 釜山府大橋通一ノ六二 電話二八二七番

# 蘇聯投降兵

## 朝鮮滿洲에放送

장고봉사건때 아군에 투강한 적군사관 「나하로프」 군은 이십이일오후일곱시사십분부터 약이십분간 경성중앙방송국에서 롱역을거처 전조선과만주에 방송하기로하엿다 방송내용은 소련민중의 비참한상태와 일본의 이상적민중생활을 역설할것으로 이솔직하자기의심경을고려한다는 일소련인의 공산주의의세례를바든 의미로각방면에서주목을 끄으고잇다

# 스포-츠

## 同德高女主催 少女陸上

### 來十月九日開催

同德高等女學校의 年中行事인 小學校女子陸上競技大會는 今年으로서 第五回를마지하야 來十月九日午前十時부터 昌信町同德運動場에서擧行하기로되엿다 少女의 體位向上을 目標로同校에서 이大會를 開催한後 年復年盛況을 이루고잇는데 今年은 더욱 模範的大會를 開催코저벌서부터 그準備에 着手하엿다한다 그리고 十月三日까지 同大會의 參加申請은 京城府昌信町同德高女(石原淸熙氏에게)에申込하기를 바란다고한다

▲競技種目=五十米、百米、四百米繼走
▲學 年=各學年으로 四學年까지(但高學年에限하야三學年까지)
▲出場規定=一種目에 各校로부터四名以內로함(其中三名을出場케함) 繼走에는 各校로부터五名以內로함(其中四名을出場케함)
▲得 點=各種目에 一等四點、二等三點、三等二點、四等一點(但繼走에는 一等五點、二等三點、三等二點)
▲表 彰=總得點最高校를 優勝校로함 但同點時에는 一等이 만흔 學校를 優位로함 一等이 同數일때에는 二等이 만흔學校를 優位로함(數校同着同位때에는 其得點을 折半함)

## 藥專中等庭球 廿二個校參加

京城藥專主催의 第九回全朝鮮中等學校(個人戰)庭球大會는 來二十四、五兩日(每日午前九時開始) 藥專코-트에서 擧行될터인데 參加校는 멀리 滿洲東中學과 定州五山中學을 비롯하야 培材中學、儆新、普成、養正、京商、龍中、龍中、大邱、京工、京城商業實踐、開城、協實、中央、培材、仁商、中東、徽文、養正、京城公立商業等의 二十二個校 七十六組가 出戰케되엿다한다

金鑛外科

## 延專싸이클部 元氣旺盛하게凱旋

今日本學生싸이클對校選手權大會에 出戰하야 五千米와 一萬米에 學生新記錄으로 制覇한 李潤白君을 비롯하야 徐廷萬、柳容熙、宋淳日等 諸選手는 監督申濟麟氏引率下에 今二十二日午後一時四十五分(十分延着)京城驛着列車로 元氣旺盛하게凱旋하엿는데 驛頭에는體育界關係者와 同校敎職員들의 出迎이잇섯다 記者에게 李潤白君은 다음과가티 말한다

이번大會에는 團體로서는 明大가 強하엿스나 張裕植 張日弘君等은 不幸히도 競技中에顚倒하야 團體에게 勝利를빼앗겻습니다 우리들도 아므로 더욱鍛鍊하지안코는 急速度로 進境을보이는 저곳選手와 對敵키 어려울것입니다

# 色鉛筆

돈벌러 머지고 집을 나가서 떠돌아단니든 탕자가돈이 떠러지고 목이 지처서 돌아가는곳이어데냐◆내고향밧게더잇스랴 하는말은 조흔곳이 어데잇스랴 하는말은 탕자만이 차저내일말이 아니고 도 제고향의자랑을 다하고 몸아오사람 마데로 남겨두는것쫌은 최후의한 다◆고향이 어째조흐냐고? 고향산천도 제각기다른것을 말할한대서 입으로다 말수업고 글로다쓸수업고 그림으로도 다그려낼수업는 곳에 고향의 무궁무진한 조흔맛이 잇는것이니◆마치 어린애가 젓꼭지에 매달린그맛이라고할까, 나를 길러내인 정기픈 옛산천과 그인정, 그풍속, 그사람, 그동무의 그말씨가 그리운곳에 갑잇는것이라 어찌 고향을나주보라 내것을허수로히보라!◆금후은 소슬하고 달은 밝은데……하는노래는 한세기 전의 망향곡이나, 때는바로가을이니 내고향맛을 다시한번 생각해볼때가아니랴!

# 八十餘名洋靴工

## 仁川府尹에懇曲陳情

【仁川】전시체하에잇서서 국책이 순응하기위하야 각종피혁(皮革) 사용이 금지되자 곳곳마다잇는 양화점은 전부가문을닷다십히 영업이부진상태에 잇다함은 본보에 수차보도한바와갓거니와 십일만부민을 상대로영업을하여오든 인천부내 삼십여개소의 양화점은 신조품제조금지가되자 일제히 영업을중지하엿는데 이로인하야 팔십여명의직공들은 각각집으로 도라가서대용품의 주문을고려하고 잇스나 대용품출회는 부지하세월임으로 찬바람은 부러오고생도가막연한데다가 모다 전업도 여의치못하므로 그들팔십여명과 가족삼백여명의 생활은 갈수록 암담한상태에 빠지엿스므로 지난이십일일에는 직공측팔십여명이영정(永井) 인천부윤에게 새로신을 길도록 하여달라고 진청서를 제출하엿다는바 그진정의요건은 다음과갓다

一、時急히 製靴케許諾하야줄것
一、實行을 許諾하심에도 失職者잇는時에는 適當한 轉業을 積極的斡旋하야줄것

# 天氣豫報

**槪況** 高氣壓은 蒙古에서朝鮮에 擴大되여잇스나 半島附近의 氣壓配置는 不安定하고 天津附近에 弱한 低氣壓이잇다 朝鮮은 흐린편이고 北滿은 비가오고 其他는 晴曇不定內地는 흐린편이나 北海道附近에는 地方에따라비가오다

**豫報** 今夜는 개엿다 흐렷다하고 明日도개엿다흐렷다하며 一時小雨가잇슬모양이다

昨日最高 二三、七 同最低 一六、六 二十二日朝六時 一八、一 同正午 二三、〇度


危險한換節期 効果 本位
虛弱을恢復할수업슬가?

只今부터 赤痢 腸窒扶斯 虎列刺等무서운 傳染病이 猖獗하기始作하여 酷暑苦炎에 지친우리에게 莫大한威脅을주고잇습니다。

그뿐아니라 여름철消化不良症이 慢性胃腸病으로 惡化되기쉬웁고 呼吸器가弱한분은 結核等重症으로 進行되기가 第一쉬웁습니다。이와가티 只今은 一年中에 第一危險한時期이나 그러나藥効도 第一빠르게나는 時期입니다。

네온톤 (NEOTONE) 은人體에絕對必要한 비타민榮養素를供給할뿐아니라 呼吸器를튼튼히하고 消化機能을 活潑케하야써 食慾을 增進하고 體力을增加하며 身體를 强壯케하는 再建設的作用이 卓越하므로 病弱한분은 勿論 누구나 本劑로써 榮養을供給하고 무서운傳染病에對한 抵抗力을 强化하야써 換節期의 病魔를 未然에防止하시기를바랍니다

適應症 (本劑를服用하실때는먼저醫師에게問議하야주십시요)
肺結核·神經衰弱·萎黃病·貧血症·腺病質·食慾不振·肋膜炎
産前産後·虛弱性榮養及加答兒·一般虛弱·榮養障碍·心臟疾患·病後恢復期

世界的 强壯劑

네오톤發賣元 株式會社 柳韓洋行 京城·大連·上海
ネオトン
(全國有名藥房販賣) 包裝 小瓶 中瓶 大瓶



朝報案內

乳母入要 本人至急來談 北米倉町九四番地 京城婦人病院

男 事務員一名採用(商業卒業者) 年齡二十五歲迄 履歷書寫眞添付 府內黃金町一 三菱商事京城支店

佐伯家具店 弊店今般本町一丁目으로新築移轉하엿사오니倍前愛護하시압

外交 信用과能力잇는外交員多數募集함 京城府民館前 安澤商店營業部

男子店員募集
一、資格 中等學校卒業程度
一、年齡 十八歲以上廿五歲까지
一、人員 十五名
一、締切 九月廿八日
市內確實한保證人二名을要함 希望者는自筆履歷書에寫眞을添附하야郵送할事 工子屋人事係

外務社員急募 貯蓄運動ニ依リ社業多忙ノタメ急ク有給社員ヲ求ム希望者ハ履歷書添附アレ面會日通知ス 京城府黃金町二丁目 明治生命京城支店 電話本局九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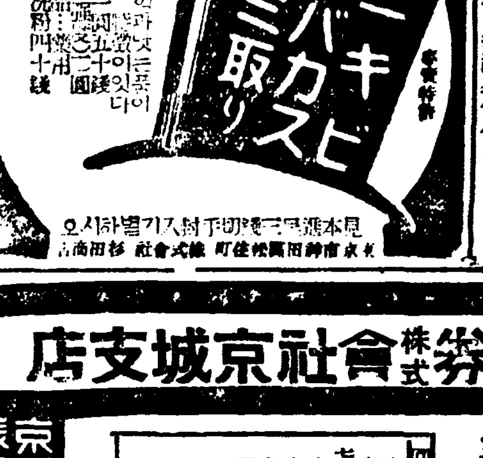
기니-네注射藥
ゴニバール(金剛)
適應症 流行性感冒、肺炎、氣管支炎、マラリア、扁桃腺炎、結核熱、産褥熱、丹毒、敗血症、百日咳、其他高熱諸症
【包裝】 一c.c.一〇管入、一c.c.五〇管入、二c.c.五管入、一c.c.一〇管入、一c.c.五〇管入(小兒用)
各地藥店에서買入하실時에는반드시『金剛製藥ゴニバール』라고指定下命하십시오 萬若品切中이면直接本店으로用命해주십시오
發賣元 金剛製藥所 京城府黃金町二ノ五七
G.K.2



生徒募集
測量科
京城工科學院
▲出願 昭和十三年九月二十一日迄 ▲考査 昭和十三年十月一日 ▲六個月卒業 ▲學則請求二錢切手
▲科目 土地測量學、測量法規、計記、製圖、伸縮圖法、數學、滿洲語、實習
京城府蓮建町一九五 光一七三番 (元京城測量技術講習所)



藥用クレーム
ヤバパンモア



見本進呈 三錢切手封入申込下さい 東京市神田區松住町 株式會社杉田商會



きれいる
△淋巴腺結核……에
○注射에代하는○ 專門藥治療法의效果
나려온 목, 가슴, 겨드랑에 멍어리가생기는 淋巴腺結核을 이르키는 것으로 …



日本勸業證券株式會社京城支店
本店 東京 日本勸業銀行構內
支那事變 貯蓄債券賣出
賣値五圓(額面七圓五十錢)
豫約受付 十月一日くじ引
割增金 三千圓 割引七回 賣値十二圓三十錢 割引十回 賣値十圓七十錢
申込證據金一通五十錢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二十八番地 振替京城二九七 電話本局四〇五四
[illegible]

# 身外無物・健康第一

## 朝夕生涼

## 健康回復의最好期!

### 三伏 불가튼 더위에 쩌진 五臟六腑를
### 一刻 速히 補하시오

## 虛弱이過度하면百藥이無效!

只今부터 곳服用하시요

百補丸은・退더위・健胃腸・補元氣・함에天下第一・先服者全部證明

●누구나여름철에는 다더위을먹어서 더위症에걸니여잇습니다 이로因하야 胃腸이 弱해지고따라서 食慾이줄고 消化가안되고 여위고元氣陽氣가 衰退되고 全身이虛弱해집니다

●여름철에 虛弱해진몸을 그대로두면 당장에는 別일업는것가트나 事實은 身體各部의 抵抗力이弱해지고 모든生理機能이 衰退되야 不知中肺病、陽氣不足、神經衰弱、 체증、貧血症等不治의大病에걸니기쉽습니다

●누구를勿論하고 三伏더위에 몸이 虛弱해젓싸오니 于先百補丸을 服用하여 胃腸과元氣 陽氣等을 튼튼히補하시요 千金보다 더貴한내몸의無病 健康長壽를爲하야 服藥의 最好機、 生凉한 初秋 只今부터 곳百補丸을 服用하기 始作하는것이 무엇보다 人生의第一急先務입니다

체증을 根本的으로 곳치십시다
陽氣不足을 根本的으로곳칩시다

**百補丸의特長**

一、大補脾胃하야 체증根絶!
二、大補元氣하야 陽氣永續!
三、氣血不足、神經衰弱、肺病、해소等이原因的으로 一掃됩니다

## 食事倍加・陽氣倍加・百病退治!

# 百補丸

## 자랑하는百補丸의効力!

一、氣血이俱虛하야 貧血이되고形容이창백하고全身이衰弱한분
一、性慾이줄고 手足과下초가 濕冷하고 肢節腰痛으로 고생하는분
一、口味가업고 消化不良과 체증 속병으로 고생하는분
一、肺가弱하야 元氣와活氣가업고 허리가압흐고 四肢가勞困한분
一、神經이衰弱하야 머리가무겁고 精神이흐리고 記憶力이不足한분、以上의 症勢는 早老할症狀이요 長壽못할 前兆이오니
一日速이 百補丸을服用하여 씩씩한靑春이되시요
一、筋骨이튼튼하여지고 氣血이 旺盛하여지고 힘이생기고 順借力이됩니다
一、消化不良 체증 속병가튼것은 어느때업서젓는지 알지못하게업서집니다
一、눈이밝아지고 精神이조와지고 皮膚가윤택하고 血色이조와집니다
一、全身五장六부를 다잘補하야 참말完全히 陰陽雙補하야體重이增加되고 陽氣가 大旺됩니다
一、過飮過色人 ホルモン不足으로因한 腦、性神經衰弱人께는 더욱速效합니다
一、長久連服하면 精力絶倫하야 一生을無病健康한몸으로 不老長壽할수잇습니다
一、年久咳嗽와 오랜 淋疾도消滅됩니다

**藥價**

| | |
|---|---|
| 百補丸 | 一劑十圓 |
| 婦人百補丸 | 一劑七圓 |
| 少年百補丸 | 一劑五圓 |

無料進呈 어느藥이고 三劑以上共同注文하면 周旋人께 一劑無料進呈

**重要販賣所**

一、本社直賣部
二、朝鮮總督府商工奬勵舘
三、全朝鮮十三道廳商工奬勵舘及商品陳列所
四、全朝鮮有名藥店
五、和信・三越

## ▲生男生女 ▲天下名藥

**부인의**

경도부조와 자궁병 냉병 대하증 불임증과 산전산후 기혈부족에 효력 천하제일
月經血色이 조와지고
月經時期가 一定하여지고
赤白帶下와 惡臭가 一掃되고
月經時 腰痛 腹痛이 絶對的으로 업서집니다
얼굴이 절머지고 粉이곱게 잘먹습니다

# 婦人百補丸

京城堅志町五
振替五番・電光 六三二番 六二三番 三三〇番

# 平和堂株式會社藥品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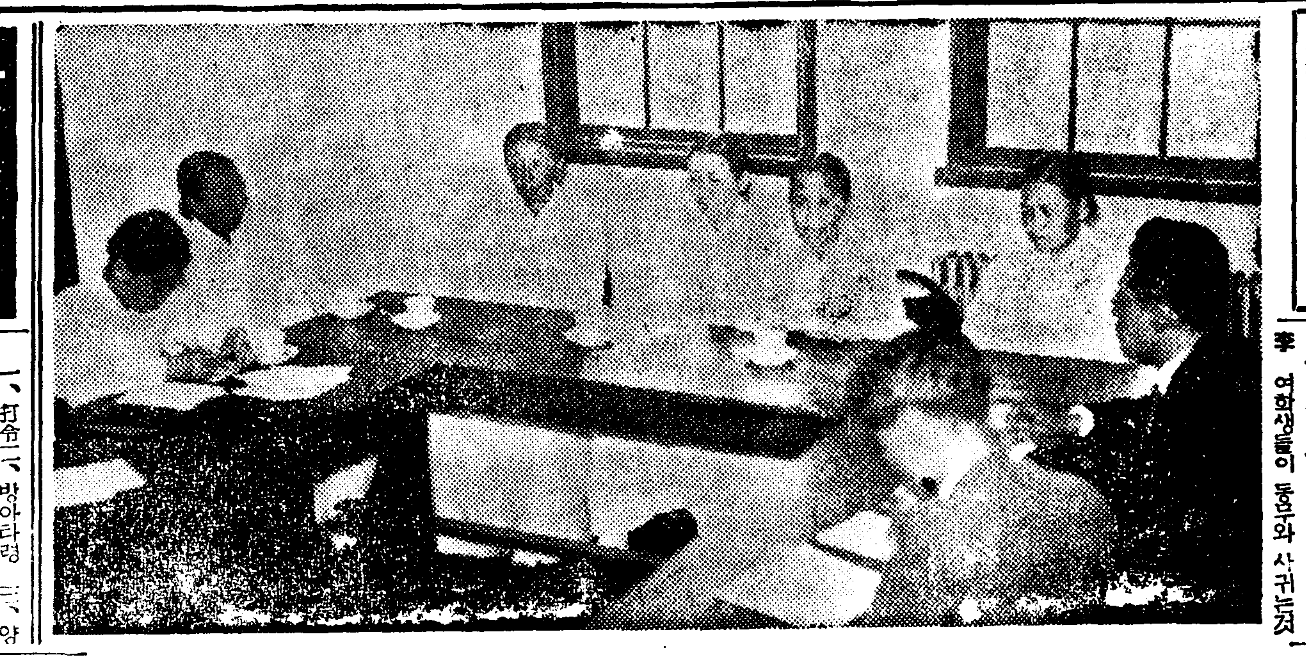
# 학교다니는딸의 두치다꺼리 座談會 ❶

## 가사에대한건학교보다 "무식한어미한테서 배울게만치안을까"

**出席者**

(손님쪽으로) 朴贊喜 / 金氏 / 金雷霆 / 趙德順 / 洪順婢

(本社쪽으로) 編輯局長 成尙勳 / 學藝部員 李源朝 / 同 李善熙



사진은왼쪽으로부터李善熙、洪順婢、趙德順、金雷霆、金氏、朴贊喜、成尙勳、李源朝諸氏

成 여러분 바쁘신데 이러케만히 참석해주서서 대단히감사합니다. 오늘 수고를 무릅쓰시고 와줍시사고한것은 여학생 따님을 두신 어머님의 고생파 기쁨을 말슴해 줍시사고한것인데 아무조록 가리움업시 의견들을 말슴해 주섯스면 감사하겟습니다.

### ◇사교에대해서

李 여학생들이 동무와 사귀는것에 대해서 어머니되시는분들은 어떠한 단속을하고 계십니까? 혹은 그대로 방임해둡니까?

朴 원전만에 내버려 두다니요 그럴리가잇습니까 한날한시인들 맘을노치못하는게 딸가진 어미지요 그러나 동무래야 저의학교동무끼리 다니는건 오히려 귀엽고 대견하나 밧가트로 나가서 몰려다니는데 질색이얘요 웬그런고하니 무슨동무의오빠니 아저씨니해가지고 저이끼리가 차저서 시시덕거리는수가 만흐니까요 그러기때문에 우리집에들은 아직어리지만 동무를 꽉집으로데려다 놀도록합니다

安 그럿습니다 우리집 아이들은 하화하면 꼿장집으로오게 마련이지 어림채보들 들고동무집으로 쏘다니게못합니다

趙 나야 그저 저히한테 맥기지요 사실 내속에서난 딸이라도 나보다 나흐니 그저멀직암치 보고만잇노라면 제아픈 제가 다차리가요 동무를 사괴도그러코……어쨋든 너무사설잔소리하는건 되려탈이라니까

洪 나는 구식여자라못난탓할 알어야지. 그러치만 우리애들은 동무를 사귀대야 집안어른들이 속내를 다아는 애들파친하니까 아직은 별로그런일로 속썩히적이 업습니다.

### 제복에대해서

李 요새여학교교복은 거개다양장이고 면회교만 조선옷을입다가 요즘그학교에서들도 조선옷을 폐하고 양복으로 교복을 만든다는데 거기대해서 말슴들을 좀해주십시요. 위선양복과 조선옷에 어느것이더 경제가 됩니까?

金 나는딸이둘 넷육여학교에보내서 공부를 시켯는데 그중에둘은 양복을입고 다녓고남어지둘은 조선옷교복을입고다녓는데 아주 조선옷은 미쳐해댈수가업고—아조 에미골을 빨아내지요. 양복이야 처음엔 조선옷보다 목돈이들지만 그담엔 늘그것을 입으면그만이고 다해여진댐에는 안으로 기워서 입혀도 멀정하고 조치요. 그러치만 조선옷이야 가을봄 히저고리를입으로 저고리해대기 여간어려운게 아닙니다

朴 그러치요. 경제적으로는양복이 나흐면낫지 못하지는안코 또 모양도 낫지요.

金靈 모양도 낫구말구요. 조선옷은 점잔허서 도리어 아이들이 더숙성해 보입니다.

洪 우리아이들은 늘 저히손으로 저고리가튼것도 뜨더겨서 거리가 여간해야지요.

趙 나도 양복입는게 조타고생각합니다. 조선옷이야 뒤치다곳잘치어입으니 참모르겟군요

### 단발에대해서

李 여학생들이 단발하는데 대해선 어떠케들 생각하십니까

金靈 저는 조케생각합니다.우선 우리애도 아조 상큼하게 뒤틀처서 단발을시켯스니까요.

金 그게무슨말슴이시요?조선사람 생활에는 아직단발머리가 어울리지 안습니다. 나는 아조뵈기실혀요.

朴 학교에서들도 단발을 금합니다. 해도소치만 그저얌게잘려도 조흘군요

趙 글세 어떨지—세상이 날마다 달려저 그러켓지만 인제는 머리가 만흔것보다 차라리 ……우리같은것들 눈에는 조케보입니다.

洪 나는 반대입니다.

成 머리를 깍거다가시집가게되면 어떠케할까요?

金靈 지금세상에 쪽찌고 시집가도 만흐하고 양장을흔대도 단발을 그리숭거도 녀녀하니까요. 그러니까는 별로 업습니다.

### 양말벗는문제

李 요새시국에 비처 여학생들이 양말을벗고 다니는데 학부형되시는이들의 눈에는 어떠십니까?

成 시원찬 좋아리를 드러내노코 다니는걸보면 숭업지요. 그러나 시국이 그러다니까하는수야 업지안습니까.

成 살을 내놋는게 안됏다는말슴이지요?

朴 그럿습니다.

金靈 거정미가잇고 흔흔하게길은데 오히려 조흘것가튼데요

### ◇바느질공부

李 여학생들 바느질은 어떠케합니까. 집에서 가르칩니까?

金 다들시킵니다. 학교에서 재봉시간에 시키기는 하지만어디 그것만가지고야 제아용차리게되나요. 내가 못잡고 시키지요.

成 그럼 기숙생은 어떠케할까요 집을떠나잇스니……。

朴 기숙사에 잇스면 제옷은제손으로 놓만지기때문에 오히려 일은 더잘배웁니다.

李 조선두루막이도 지울줄압니까

洪 웬걸요 그런옷은 나이가 웬만큼 들어야하지요. 그래도 시집가면 다서방님 두루막이도 지어입히고하지 그걸못해 못살지는 안을군요

李 여학교에서 배워주는 가사와 집안에서쳐파 일치합니까?

朴 좀 다릅니다. 다르기는 달러도 다쓸데는 잇지요.

成 학교에서 배우는 가사란은 부족하지 안습니까.

金 안부족하고말고—여부잇나요 거게서배와주는건 무스럼뿌라니 무어니하면서 책을보고 중량을 달어서하는데 우리가정도 어서 그만한 정도로 진보해야하겟지만 지금형편으론 그러케 배와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도 무식하다해도 이어미한테 배우는게 후에 쓸곳이 더만흘 줄 압니다.

—계속—

---

## 長篇小說 愚氓 【139】

朴泰遠 作 / 洪祐伯 畵

### 最後의犯罪(1)

「대사나?」

언제나 한가지로 미다지 한경 격한 엽방으로부터 대원님의 장중한 음성이 들려왓다

「네—」

구경꾼은 단정히 꿀어 앉즈며 대답하엿다

「무어 내게 할말이 잇다구?」

「네—」

구경꾼은 엽방을 향하여 고개를 잠깐 들고

「석왕사서 오늘 아침에 도라오섯습니다.」

「웅? 석왕사서? 저— 그애가?」

「네!」

「호—。그래 그애가 그러니까 게가 잇는지 그게 달포가 훨씬 넘지 안느냐?」

「네—。꼭 두달이 되시옵니다.」

「두달? 호으음…… 그래그동안 별고 업시 지내던모양이더냐?」

「네—。역시 산 조흔곳에 게시다 오신터이라……」

「허지만 객지에 나가면 자연 고생이 되지。무어 건강도별로 상하지 안코?」

「네—。오히려 떠나시기 전에 비하여 혈색도 조하지시고……」

「호으응……」

미다지가 다처 잇스니까 알수는 업지만 대원님은 만족한 듯이 고개라도 끄덕이는 모양이더니

「그래 여에는 너 혼자 나갓섯든?」

「네—。저— 참봉달이라고가튼 하숙에 잇는 화생 하고……」

「웅 그래 그 학생하고」

「또……」

구경꾼은 잠깐 머뭇거린 뒤에

「저— 유명옥이란 여자하고섯이 나갓섯습니다。」

「여자가 누구?」

「저— 유명옥이라고요。」

「유명옥이라?……그 어떤여자냐?」

「저—」

하고、구대사는 역시 또좀 망살거린 다음에、

「다옥정 사는……지금은 나와 안친 기생입니다。」

「호으응……」

잠깐 동을 떠여

「그애가 그런 여자하곤 어떠케 알엇노?」

「네—、저— 작년 겨울에신천온천 가섯슬때、한 여관에드섯든 판게로 아섯나 봅니다。」

「호웅。그래 지금은 기생을안 댕긴다?」

「네—」

「그럼 살림을 들어갓나?」

「아니옵니다. 어린 기생 두엇 데리고 그냥 훌륭 지내옵니다.」

「몃살이나 됏지?」

「삼십여세 되엿나 봅니다」

「넷이라던가?다섯이라던가?」

「호으응……그래 자주 왕내가 잇는 모양이냐?」

「무어 그러치도 안사옵니다 그저 벗삼으셔서 때때 산보나가치 댕기실뿐이죠」

「…………」

대원님은 잠깐 말이 업더니

「너, 오늘 다시 그애한테가 보겟냐?」

「네—。저—무어 분부게시오면……」

「무어 다른 일은 업고……엇그제 벗레사가 가지고 온 황주 사과나 좀 갖다 주어라。」

「네—。」

「그리고 금명간이라도 틈잇거든 날좀보고 가라구그래라」

「네!」

구대사가 미다지를 격하여대원님에게 예하고 그방을 물러나오려할때 대원님은 생각난드시

「참 그놈년 근래도 구리개바닥으로 도라다니는냐?」

「저— 누구말슴이옵니까?」

「그 무어 미친놈 잇다지안혓느냐?철학자니 무어니 그러는……」

「네— 거리의 철학자라는자말슴이옵니까? 근래는 참 어덧갓는지 도무지 뵈입지안습니다。」

「볼수가 업다? 언제부터……」

「글세 올습니다. 처음에는 모두들 병신놈이라구, 말슴하자면 인끼라는것도 잇섯습니다만은 며칠 안가서 아무도 주의를 안햇스니까, 글세……… 아마 여러달 되나 봅니다.」

「그자 업서진지도—。」

「호으응……」

「아마 서울에는 업는것가기도 하옵니다. 잇스면、어디서든한두번쯤 만날것도 하옵는데……」

「…………」

「네——」

「호응……그만 물러가거라 저1, 사과를 이저버리지 말구」

「네——」

그리고 구경득이는 그방에서 나와버린것이나, 거리의 철학자가 어미 장안에서 자최를 감추엇다고 한 그의 말은 옭지아혓다。

---

## 라디오푸로그람

### 二十二日(木曜)

◇午後六時 라디오學校『家畜飼養 어떠케사료잡는가』 林千萬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經典解說(京城)『吾人生活의三大要素』 李東旭
◇同六時三〇分 經典解說(平壤) 社會生活과宗敎 鄭志强
◇同七時 뉴-스 銃後美談 天氣豫報
◇同七時四〇分 講演 日本이나에게어떤印象을주엇나 赤軍下士官 나하로프
◇大衆演藝의밤◇
◇同八時 歌謠曲 一、외로운나루배(林) 二、에디오피아夜曲(鄭) 三、人生沙漠(林) 四、沙漠의밤큰喬(鄭) 五、장미색라식(林) 六、눈물에어린사랑(鄭) 七、男子의마음(林) 鄭彩心 林玉梅 伴奏 DK管絃樂
漫談『代用品時代』—石友三作 孫一平 申不出
하와이안키타-音樂
一、打令 二、방아타령 三、양산도 四、노들강변 張明浩트리오
하이킹스케취-趙東坡作- 一、아침 二、낫 三、저녁 配役 하이커-…洪開明 그누이…南海燕 그동무 李蘭影 다른하이커…孫一平 그愛人…李白嫄 農夫…太乙氏
演出 金素 效果 南一春
◇午後九時三〇分 뉴-스解說
◇同九時四〇分 (東) 時報 뉴-스 氣象通報 明日曆 翌日順序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뉴-스
◇同一〇時一〇分 中等國語講座(四) 李完應

**第一放送**

◇午前一一時 (東) 幼兒時間·童話
◇正午 (大) 女聲齊唱
◇午後六時 (東) 世界偉人傳
◇同六時一五分 產業뉴-스
◇同七時四〇分 講演
◇同八時 講談
◇同八時三〇分 라디오時局讀本
◇同九時一〇分 人情浪曲

### 二十三日(金曜)

◇午前六時(東)라디오體操-(第一放送에依함)
◇同一〇時三〇分 氣象通報 料理獻立 日用品時勢
◇正午(東)時報 (東)하-모니카合奏 미야다하-모니카빤드
一、行進曲『永遠의忠誠』스-자作曲 二、歌劇『도란』序曲 모-차르트作曲 三、幻想曲『出帆』杉山長谷雄作曲 四、行進曲『海軍士官候補生』스-자作曲 五、大空에솟치어자 江口夜詩作曲 六、行進曲『칸사스의英雄』스-자作曲 七、軍歌『嗚呼南鄕少佐』江口夜詩作曲 八、行進曲『國民皆兵軍』스-자作曲
指揮 宮田東峰
◇午後零時三〇分 뉴-스
◇同一時一五分 家庭時間『兒童과環境의關係』 尹德喜
◇同四時 뉴-스 職業紹介
◇同六時 唱歌와童謠
一、齊唱어데의꼿 二、同文字習及歌 三、獨唱보름달 四、齊唱동대 五、同동리의원大、獨唱 목장의저녁 七、齊唱 햇빗짱짱 八、同은행나무 九、輪唱 해살엇든벌이 十、齊唱도라오라 十一、輪唱소나무 十二、齊唱九月山
淸凉里主日學校兒童
◇同六時一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라디오時局讀本
◇同七時 뉴-스 銃後美談 天氣豫報
◇同七時三〇分 講演『朝鮮나비이야기』 松都中學 石宙明
◇…女流唱劇의밤…◇
◇同八時 一、가、短歌 乾坤歌 나、唱劇調 赤壁歌中[illegible]는데 金素姬 鼓手 丁元燮
二、가、短歌 [illegible] 나、唱劇調 沈淸歌中臨塘水가는데 金如蘭 鼓手 丁元燮
三、가、短歌 公道難 나、唱劇調 興夫歌中집터다듬는데 朴綠珠 鼓手 丁元燮
◇同九時三〇分 뉴-스解說
◇同九時四〇分 (東)時報 뉴-스 氣象通報 明日曆 翌日順序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뉴-스
◇同一〇時一〇分 初步國語講座(一九) 宋今旋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 (東)하-모니카
◇正午 (東)支那語講座
◇午後六時 (東)世界偉人傳
◇同六時一五分 (東)講演
◇同七時三〇分 (東)歌謠
◇同七時四〇分 (上海)
◇同八時 (東)講談
◇同八時三〇分 (城)獨唱
◇同八時五〇分 (東)物語
◇同九時一〇分 (東)時事解說

---

## 자차리우

### 병은안바덧다

『어머니 내뒤에안진 애는 어제숙제에 병을 바뎃다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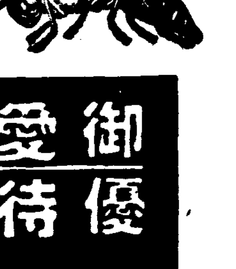
『저를어제 그럼너는 무얼바덧니』

『나는 숙제를 안혜 갓스니까 병은안바덧지』

(글쓴사람 송명옥)

---


補血强壯·疲勞恢復



蜂ブドー酒 (포도)

御愛飲家優待特賣 当籤発表

盛況!盛況!

回를거듭할때마다 호평을博하고 잇습니다 蜂포도酒、렉기스愛飲家一비스는 今回도 亦是新記錄樹立의 大成功裡에 豫定과가치 去八月廿日締切하고 通信社員立會嚴正抽籤의結果 左記番號가當籤으로 決定되엿습니다 茲에番號發表에 當하야 應募者諸位와아울러 始終熱心으로 後援해주신 全國販賣店各位에게 感謝하는 바입니다

昭和十三年九月
蜂ブドー酒レッキス本舖
近藤商事株式會社

一等 357
ハイキング用品……六點 (ハイキングシューズ・リユックサック・登山帽・ツヌはスカート・飯盒)
一等三千圓割增金付 四十圓割引勸業債券(額面二十圓券)二枚
女物 ポータブル蓄音機
男物 高級變型腕時計

二等 64 781
ピクニツク用品……四點 (ピクニツクバツク・水筒・ホークナイフスプン組合せ・子供用リユツクサツク)
電氣柱掛時計
錦紗兵兒帶地
ブドーセル地
銘仙夜具地

三等 523 560 918
ピンポンセツト……一式 (ネツト・バツト二個・ボール六個・ネツト保持金具)
高級萬年筆
蒔繪附菓子鉢
紡績 日英米各國特許アルマイト製 二色シャープ

四等 醫學博士 荻原良一郎著 家庭健康讀本

| | | | | |
|---|---|---|---|---|
| 2 | 189 | 399 | 581 | 771 |
| 16 | 194 | 403 | 590 | 798 |
| 23 | 211 | 412 | 598 | 808 |
| 31 | 226 | 421 | 611 | 819 |
| 38 | 238 | 433 | 628 | 826 |
| 45 | 245 | 445 | 632 | 839 |
| 53 | 259 | 459 | 644 | 841 |
| 59 | 263 | 468 | 653 | 855 |
| 72 | 272 | 471 | 666 | 867 |
| 83 | 283 | 482 | 672 | 881 |
| 91 | 295 | 490 | 681 | 910 |
| 119 | 315 | 505 | 692 | 926 |
| 121 | 326 | 511 | 699 | 938 |
| 138 | 331 | 518 | 711 | 945 |
| 141 | 345 | 529 | 726 | 951 |
| 144 | 369 | 533 | 738 | 966 |
| 159 | 378 | 545 | 745 | 970 |
| 163 | 383 | 551 | 749 | 982 |
| 175 | 390 | 569 | 758 | 990 |
| 188 | 392 | 572 | 768 | 996 |

맛잇고 榮養이되는 レッキス (렉기스)



現代朝鮮文學全集 第七回配本 戲曲集

==全七卷全集完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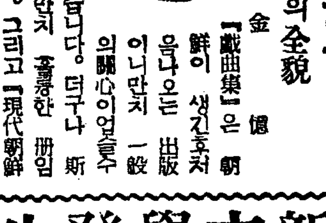
朝鮮文學의最高峰!! 絶讃裡에再版大發賣!!

「現代朝鮮文學全集」은 最近三十年間 朝鮮文學의 精髓를모아 發行하는니만치 그人氣는 非常하여 一回부터六回까지 어느듯再版三版이 出來하고 마지막으로 七回配本도 再版이 出來하여 全讀書界는 如狂如醉로 큰『센세이숀』을 이르키는 中이다 더구나 이『戲曲集』은 朝鮮에처음되는 嚆矢的出版으로 文學의모든 方式中가장 새로운 表現이여서 實로우리文學界에 金字塔을 새로하나 세운것이다。 이冊은 朝洋人의幸福과 눈물의 記錄이요生活의 地圖여서 二千萬朝鮮人의마음을비치는 한개의 太陽이안일수업다

第一回配本 短篇集(上) 三版發賣中
第二回配本 詩歌集 三版發賣中
第三回配本 短篇集(中) 再版發賣中
第四回配本 隨筆紀行集 再版發賣中
第五回配本 評論集 再版發賣中
第六回配本 短篇集(下) 再版發賣中

戲曲集內容
祭饗날……蔡萬植
出家……洪露雀
祭祀……柳致眞
黃金山……宋影
藥水風景……金雲汀
한나제꿈꾸는사람들……李無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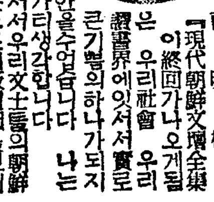
大好評의戲曲集
朝鮮文學의全貌 金德[illegible]



『戲曲集』은 朝鮮이 생긴후처음나오는 出版이니만치 一般의關心이업슬수 업습니다。더구나 斯界權威가 執筆하니만치 충실한 冊임에 틀림이업습니다。그리고『現代朝鮮文學全集』은 實로놀라울만큼 世界水準에 그리遜色이업는한것이며 이러한全集이 今月로써完結된것은 實로반가운일이오祝賀할일입니다。(云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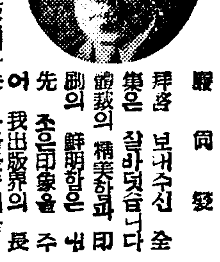
今月로써 新文學發生以來의 收獲 七卷全集完結

雄文巨筆의全集 曺晩植



「現代朝鮮文壇全集」이終回가나오게됨은 우리社會 우리讀書界에잇서서 實로 큰기쁨의하나가되지 안을수업습니다 나는 이기쁨을 다음과가티생각합니다
一、우리社會에잇서서우리文士들의朝鮮말로쓴全集이우리손으로出版된것을보기드문이때에『現代朝鮮文學全集』이꼿回가나오게된것은여간기쁜일이안입니다
二、이『現代朝鮮文學全集』은 最近三十年間新文學作品中八十名文人의 最高傑作을精選하여 萬集한바이매 實로雄文巨筆임에 틀림이업서 讀書界를위하여 기뻐하는바입니다

大集成 嚴興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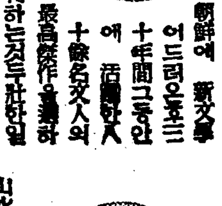
拜啓 보내주신 全集은 잘바덧습니다 印刷의 鮮明함은 勿論이고 裝幀의 精美함파 先 조흔印象을 주어 我出版界의 長足進步에 哭驚케하는바가만습니다 內容에 잇서서 豐富함은 敢히 讚辭할 바가 더욱 發見되리라 믿습니다. 求하기 어려운 作品들을 모아주시어 朝鮮文學의 一大集成을 完結하섯슴 感謝하오며 貴社의 功으로 조타고 생각합니다

金晉燮

[illegible] 展覽에 供하기보담 [illegible] 價値노픈全集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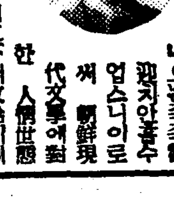
全七卷全集完結에對하여

朝鮮文壇의壯擧 呂運亨



朝鮮에 新文學이 이러난지 三十年 그동안 活動한 八十餘名文人의 最高傑作을 蒐集하여 文學全集을 發刊하는것은 壯擧라할것이나 이제 그七卷의全集을 今月로써完結하섯다니 매우반가운일이외다 이는모름직이 朝鮮文學에 끼치는바影響이 크거니와 아직도 이러한 全集이업서서 朝鮮文學의 輪廓이라도찾어보기 어려운때에 實로 貴社全集의完結은 매우意義잇는일이외다

朝鮮文學의全輪廓 鄭芝溶



나오는족족 讚美치 안할수 업스니 이로써 朝鮮現代文學에 對한 人物世態 山水地理가 一目之下에 收拾키에 넉넉하게되엿다。短篇小說集 上、中、下、隨筆紀行集 詩歌集 評論集 其他 戲曲集으로써 燦然한 未來를 [illegible] 文學的朝鮮의 [illegible] 이全集에 網羅되엿다할것이다。

完結된 全集偉容

四六版 三百六十餘頁의大冊
洋裝 크로-스豪華美麗本
一冊定價 一圓二十錢 (送料二十二錢)
一時拂 全七冊 七圓 (送料本社負擔)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朝鮮日報社出版部 振替京城五八七八番

# 智異山探險記

## 智異山行第六日……(二)

## 新羅禪實相寺

⑬ 李殷相

馬川을 떠난 自動車가 君子里 아홉지나 연방 酒谷을 거슬러 외편으로 集水嶺을 指點하는 東水里 萬村을 만나는 동안에 우리는 慶尙道 咸陽땅을 버서나 全羅道 南原境內로들어선다

얼마아니하야 白日里라는路邊에서 잠간 車를머물고 외편으로내릴건너 奇怪한木長柱 一位아페 우습던지 禮하면서 樹林中으로 들어서니 여기가有名한 實相寺이다。

얼른보아 野地에 자리를잡은것이 마치 慶州城內의 諸古刹의遺蹟과 가튼 늣김을가진者로 一層의新羅風味인듯도하엿다。

이實相寺는 지금 南原郡山內에 屬하는 新羅時代의 巨刹이다。新羅興德王三年(八二八)에 洪陟國師의 開山한것인바、朝鮮佛敎史는 洪陟을 洪直이라고도써스며 그는일직 憲德王朝에 入唐하야西堂에게서 心法을傳하고 興德王卽位初에 還國하야 이山에休足하매 宣康太子가 그에게歸依하엿고、이어 이實相寺를 勅修住持케하니 그의門下에는片雲秀徹(一作澈)等 千餘人의弟子가輩出하엿다。

寂照塔碑記를 據하면 南岳洪陟國師의 入唐求法이 北山道義國師의後라고는할지라도 還國한뒤에 伽藍을 創立하고 門派를形成하기로는 이實相山으로써 新羅禪門九山의最先이라 할것이니 그러므로海東의 禪宗으로는 洪陟國師로써 初祖를삼아도 過言이아닐것이다。

當時 九山禪門은 實로所謂 曹비이섯거니와 特히 이南岳의洪陟은 저北山의道義와 서로前後하야 海東에禪風을떨친것이오 또二者中에서도 其禪傳統繼承을 據하면 陟의化益이 훨씬보다 더기뜬것이엇고、道義는 어느程度까지 不遇를 입어『獸迹雷中、雖思東海東、終道北山北』(寂照塔碑記)이라할가 雪岳山의 陳田寺에 몸을숨기고 禪道의 弘通에는 오히려成效를 못보인듯하되、이洪陟은 宮中과民間에 隆崇한敬禮를바더 當時가장우뚝한禪門을 이루게된것이엇다。

지금朝鮮에 現行하는 禪門儀文에 大迦葉以下 六祖慧能에이르기까지의 法系를 記錄하고 이어 禪門九山의開山祖를 列記하엿스되

道義(迦智山)
梵日(闍崛山)
哲鑑(師子山)
無染(聖住山)
玄昱(鳳林山)
道憲(曦陽山)
慧徹(桐裡山)
利嚴(須彌山)
洪陟(實相山)

이것이 當時의九山禪門이엇는데 이實相山(智異山)이 冒甲이엇던것이라、여기로因하야도그로因하야 新羅佛敎文化의 燦爛한비치 얼마나 더하야젓던것을 생각하면 이 實相寺의 存在가 智異山의 文化的價値를 얼마나 높피는것인지도 알수잇슬것이다 그리고이 實相山의 第二祖라 할이는洪陟의高弟 秀澈國師이니 楞伽寶月塔碑에 依하면 景文王、憲康王의 敎信을 엇엇스며 勅命으로 深源寺에 머물다가 弟子粹忍、義光等을 보내어 智異山北의 勝地를 卜하야 이實相寺에 들어온것을 알겟고 또同碑에

『祖西堂嗣父南岳陟』

이라한것을보면 그法系가 南岳洪陟의弟子이엇던것을 明示하고잇다。그런데 지금 그의碑가 實相寺[illegible]에 서잇거니와 이碑文을 [illegible]에 記錄하엿스되 [illegible]가 생겨잇슴은 正誤하지안흐면 안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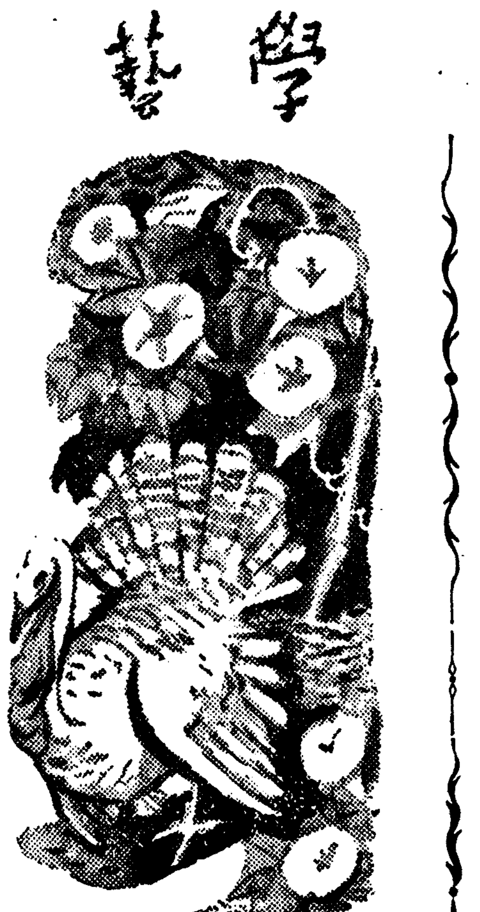
碑字가 磨滅되고 文字가不明瞭한 部分이나 첫머리에새긴 [illegible] 深源寺의『深』字를『探』字로 誤讀하얏슴은 重大한錯誤가 아닐수업다。

碑字가 探字로 錯誤된것에서 시작하야 該學者中에서 實相寺의舊名이 探源寺이엇던것처럼 보는이도 잇게되엇슴은 큰錯誤이니 그러면 深源寺秀澈和尙碑라고 [illegible]이 疑心할것이다。

그러나 이는 秀澈和尙이 本是 [illegible]山深源寺의 開祖이기때문에 그法系를이어 洪陟의實相寺에 그碑를세우면서도 그의本寺이던 深源寺의名을冠하엿슴이니 그러므로 探源寺라는것은 本是부터의錯認이요 深源寺라는것도 實相寺와는 相關업는 秀澈國師의本根據地이엇던 [illegible]山의 寺名이엇음을 注意할것이다。

(寫眞은實相寺相關祖洪陟碑)

# 學藝



## 戀愛와結婚과文學

### —作家的最高感情의問題—

④ 安懷南

그러나 이러한것은 그냥 나個人의 아름다운 한개理想에그치기만하는 모양이다。戀愛의情熱로 무슨 큰 事業을 成就하엿다는

**逸話**는 今古에 만흐나 結婚의情熱로 그러하엿다는것은 흔하지안타。그러치만 原則的으로는 그反對이여야 할것이라고 나는 밋게된다。

왜그러냐하면 結婚하기 위하야 戀愛하는것이 아니라 戀愛하기 위하야 結婚하기때문이다 고약한 逆說이라고 펑개칠른지 몰으나 나는 그러해야 올흘것이라고 생각한다。詩人 단테가 베아트리체를 사랑하게된것은結婚하리라는 實際的인 加利에서보담 오히려 그것보다 先行的인戀愛의情熱에서 始初한것이라고 解釋하는것이 安當할것이며 도한 萬若에 그가 失戀하지안코 結婚하엿다면 그는 愛人베아트리체를 안해라는 이름아래에서 一生을 두고두고 戀愛하기 위함이엿슬것이다。即戀愛하기 위하야 結婚하는것이다。

그러키때문에 누구의말과가티 結婚이 戀愛의 結末이요 戀愛의 墳墓일 理致는 萬無다。그러라고하면

**當初**부터 그들은 戀愛하지안홀것이며 기에는 戀愛가 업서던까닭일것이다。戀愛에서 시작햇다가 結婚에서 끗나는것이 아니라 그두가지는 식지안는 情熱의 道程 한가운데에 처하야 잇는것이라고 본다。적어도 그러한것이라고 몰고마음으로할께 미더야만 그것은 올흔 態度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압서 말한것처럼 우리에게는 戀愛가 먼저잇다。그리고 그뒤에 結婚이잇다。生活이 먼저잇고 文學이 뒤에잇는것과 마찬가지 順序이다。가장 우리가 處女心으로써 對한 最高의 感情은 戀愛이다。第一步에잇서서 戀愛가 그最初의 至上이다。그것이 最高요 至上이고보면 勿論 누구나 自己의情熱을 다하는것이다。

단테는 무엇보다도 文學家요 괴테는 무엇보다도 政治家이지만 단테의 文學에對한 情熱은 괴테의 政治에關한 情熱에손톱만치도 못하지 안헛슬것이며 또한 괴테의 政治에關한 情熱은 亦是 단테의

**文學**에對한 情熱에 눈곱만치라도 뒤지지 안헛슬것이다 戀愛의情熱도 꼭 매한가지다 한사람의 政治家가 社會에대하야 그러함가티 한사람의 文學家가 藝術에대하야 그러함가티 그것이 自己의 最高요 至上인때에는 오직 情熱을 다한다。

다음에 結婚이온다 勿論 情熱은 繼續한다 이때에 잇서서도 戀愛와 結婚을 文學의 우에두고 妻子를 더尊重히 하는데 그러면서도 文學을 行爲하는것을 나는 藝術의 人生主義的態度이라고 말햇다 이와 反對로 虛飾이요 假裝에 不過한 觀念的인것이아니라 眞實로 文學에對한 사랑을 自己의 最高의 感情으로하는作家도잇다。우에서본 病床우의 우리어느中堅作家가 그好例이다 이것을 나는 藝術至上主義이나또한그것은 生活의 藝術主義이라고말햇다。

失戀한後의 단테는 藝術을自己의愛人과가티하야

**神曲**을 나하노핫고 괴테는 大英帝國이自己의愛人이라 부르짓고 民衆을 위하야 싸웟다 이때에잇서서만은 하나는 文學至上이요 하나는 政治至上이나 그것들이모두 結局에는 한결가티 人生을 위한것이라는 意味에서 들다 똑가티 人生主義인것이다。

生命보다도 妻子보다도 自己의 文學을 最高感情으로하는藝術至上主義의 藝術을 爲한藝術 그것도 괴테의 政治至上이 정말은 人生을 위하야서만인것처럼 結局에는 人生을 爲한藝術主義이며 戀愛結婚을 最高感情으로하는 生活至上主義의 人生을爲한 藝術또한 단테의 戀愛至上은나종文學을 위한方法이된것처럼 그것도 못내는 藝術을爲한 人生主義인것이다。

나는 冒頭에서 戀愛와 結婚과 文學이것들은 지금에 이르러 나에게 가장 重大한것으로서로 똑가튼다 어느것이 덜할것업시 나에게잇서서는 最高의것이다 이러케 말하엿다 그러면

**藝術**의 人生主義的態度와 生活의 藝術主義的態度의 相合融和를表明하는것인데 이것이 어떠한關係를 갓는것인가 마지막으로 떠저볼라고 한다。

## 科學漫筆 ◇(三)◇

## 人造肥料

高工敎授 安東赫

本邦人造肥料事業도 어느듯 五十年의 歲月을經過하얏다。소ー다(硫安의俗稱) 過燐酸 石灰窒素等은 農村의 常識이되엿스며 空中窒素固定工業의 偉觀은 世人의 耳目을聳動하얏다。朝鮮의 金肥事情을 그原料供給關係로 보면 空中窒素와無煙炭 石灰石等은 거의無盡藏이나 硫黃 燐鑛石加里鹽等은 대단히不足하다 그럼으로 그土地狀況에 依하야 石灰窒素 尿素石膏硝酸알몬等의 消費를奬勵함이可하다

尿素石膏는 空中窒素와石炭으로부터 合成한尿素를加工한것으로 只今平南順川에 工場을建設中이다 加里給源은 明礬石長石 海綠石 高嶺土等鑛物에서 若干量求할수잇스나 그埋藏量及品質이 시원치안흠으로 海水工業의 勃興을 要望한다 燐酸給源은 朝鮮서는 絶稀이잇슴일이니까 輸入을 免하기는極難이다。

年前科學界에 非常한衝動을준『우신』第一植物成長要素 植物비타민 又는호르몬의 發見은 今後肥料에 新課題를 賦與하엿다。이것이 工業的으로 如何히 消化될른지는 興味잇는問題이다

尿素는 動物의尿中에 含有된物質이다。이것을 人工的으로 合成하여서 肥料로 利用할뿐만아니라 尿素樹脂!有機硝子 께여지지안는硝子 人造板 塗料等에利用되고잇다。硝酸安門은 有名한硝安爆藥의 原料인데 最近肥料用으로 注目되고잇다。空氣를 分離하야 窒素와酸素를取하고 물을無煙炭으로分解하야水素와 炭酸을만드리노코 水素窒素로『암모니아』『암모니아』와 酸素로硝酸 硝酸과『암모니아』로硝安『암모니아』와 炭酸으로 尿素를 製出하는것이다。

◇

人造肥料라는것은 무엇인가? 今日如此한 愚問을 發하는사람은 업슬것이다。五十年前의方法이 米國으로 부터 輸入되엿슬때에는 于先이것부터說明하고 敎育하지안흐면 안되엿다。

明治二十年二月 本邦人造肥料界의 元祖인 大日本人造肥料會社 創立趣旨書를 一讀하면 當時의情勢를 知悉할수잇다。推測컨대 高峰讓吉博士의 草案이다。其要領을 摘記하면 于先肥料改良의必要한點에對하야 日

『譬之於人身하면 肥料는猶如食物이로다。家屋衣服之稱者는 猶可忍이나 雖然이나 苟食物而 欲養不足이면 其生育이 不能充分이리니 肥料改良之急을可以知矣로다』

다음에는 肥料化學成分에論及하여 가로대

『凡 植物體를 組織하는바 主成分은 燐酸 窒素『포타ー스』等也로다』

略하고 肥料三要素論을實例를들어서 說明하고잇다。

『포타스』는 即加里의 英米式名稱으로 人造肥料의移植이 高峰博士의米國視察에 起因함을 理解할수잇다。그다음에는 製造法을說明後米國서 人造肥料를 使用하야 農業上成功한 實例를들어그 當時旺盛하엿던 歐化熱과握手하고 그事業의 援助를民衆에게 要請하엿다。

『夫人造肥料者는 燐酸石灰를 粉末化하야 硫酸을加之하야 可溶性으로하고 更히 安母尼亞及『포타스』肥等의 物質을 和而製之하나니라』云云

◇

그러나 日淸戰爭前의 農民들은 죽처럼 이程度의說明으로는 到底히理解할수가 업섯다。于先人造肥料의 定義解釋에 勞心하엿다。『人造肥料라고 떠드나 自古以來우리가 만들고 잇지안코나?食虫이들을 모아노코工場을 만드는게로군』云云의 지꾸진人生도 잇섯스나 이것을 아조적잔흔이편엿다。佛敎의因習에 겨은 農民들은 骨粉製造工場을 閻羅大王의 巢窟가티 白眼視하고 畜犬此畜生道의事業을 阻止키爲하야 暴言을加하므로 할수업시 深夜中몰래 간신히作業하야 製品은 無代進呈하야 恐懽하여서 試用을 哀乞하엿다한다。

如斯한努力에도 不拘하고 人造肥料事業의 進展은 極히困難하엿다 조금開化의바람을 쏘인紳士들로 一種의醫藥으로 생각한사람이 적지안햇다 人造肥料會社 創立後一年餘에 左와如한 肥大藥注文의 葉書가 配達되야 會社幹部를 喪魂落魄시켯다。

『謹啓者 今般 貴社에서는 人造肥料御製造之事를 承聞하얏삽는데 右는一週間分 代價幾何이오지 又服用後肥大의効驗狀況을下敎하여주시옵기를伏望耳』

明治二十一年八月十五日

橫須賀鎭守府附 一等水兵 某

化學工業界의 王座를 占有하고 農村經濟의 鍵鑰을 掌握하고잇는 現在의肥料工業界의 黃金時代로부터 五十年前에 幼兒時代를 回想하여볼때 當事者로서는 實로 無量한 感慨를 禁할수 업슬것이다。

◇

筆者의 職業上 工業企業問題가 大段히만타。그런데 工業은 着手即時부터 收益하기어려운것이 만타。即時收益의利潤이업스면 其企業을 度視하고 또所謂 大實業家도 不完全한 自己의失敗經驗을 誇大視한다。어느事業이나 創業時代에는 이러한程度의 困難이잇는것이다。

어느國의 笑話가 朝鮮企業界肥大에 一助가 되기를 바라는바이다。

## 女流隨筆

## (秋)(日)(詞)(藻)……(三)

## 뻰취

毛允淑

傷한 落葉이 개울물라고 나려간다 동무와 나는 윤기업는 갈색잔디위 퇴색한뻰취에안젓다。O의얼굴은 하로밤사이에 필수도잇고 하로밤사이에 쇠하는수도잇서서 그의건강이란 요술쟁이의 支配를밧고 잇다한다。그가너무밧족한 作品의 所有者요 役人情한表情을 가끔 지게되는수가잇서 남의재판에 자조오르나리는일이 잇스나 그가 또 한가지 생각에만 充實하여 그 反映으로 다른일에 冷淡하고 무식한술은 그들이 모를것이다。

우리는 가끔 마른돌을 개울에 더퍼본다。긴급이 만날일이잇서 만난듯하게 조금전까지도 만나기에 바쌧스나마 상만나고나면 아무얘기도업다。

언제든지 나는 동무를 맛나 生活에관한 이얘긴 해보지못한다。살림사리얘기는 나뿐아니라 나를 만나는 동무두엇도 그러케 둥한한이가 잇다。나는 살림이얘기만하는 女子는 마음밧게 서잇는 동무가테서 친해지지 안는다 우리는 만치 아파트나 어느기숙사에서 살면서 가끔만나는사람처럼 먹고사는 일에처한 直接뇌론은 축처럼 交換되지안는다『이래서 不幸하지안수?』女子가살림얘기에 등한한것이 不幸한징조인듯이 문득 그가 이런말을한다 R이나O를 만나면 한상이러케 살림얘기가 안나오는것이 이상하다。흔이다른女子들과가티 화장품얘기 옷얘기 시어머님시누바찬거리 얘기가의례 나와야 올흘것가튼데 만나면 이런류의 얘기는 통업스니 이게무슨女子의 所爲인지 알수가업다。더구나 O는살 세방을 못어더 집에서 쩔쩔매고 一時살어갈 生活費가 극박히要求되는때라도 거기관한 얘기는 한번도업고 의론도업다。이러케 돈과 밥과 화장품에 무관심하고 大體우리가 생각할重大한것이란 무엇일고?더구나 나는色盲은 아닌데도옷의 빗갈 가르는데 예민치못하여 금年이웃는다 O는이따금 손수건으로 눈물을훔치는때가잇다。

「아마 너무 돈에 쪼들려 근심이생겻나보다」

하고 理由를 무르면

「그까지것때문에 무슨눈물이나우?내女性이 미워져 울지!」

그리고는 女性에관한것이라는 저 울어버린自己主體를 한참씩 느리노키가잇수다 女性이 美化하여 어느影響을 비며가지고 그의때문 [illegible]은 기쁘게하는것은 지각할수잇스나 다른데에소용되는 女性과는 너무다르게 유하고순수해지는것은나 노라리라 번데티생각햇스나 지금은그러케 생각든내가無限하도록 그는 美의探求心이强하고 一種的이다。「무서운女子다」하고생각되나 어무서움은 반가운모음을 찻는때가지는 의헌생각이다。이런女子의存在가리 만허저야반가울일이다。永遠한未完成을조하하[illegible]

[illegible] 아니기때문에다

밤파로파 화장품때문에 마음이하사리 동요되지안는것이 女子의女性이다고는 말치안코나 無知하게보이지안는것에 배고품을 더가지는點의 女性이 요새는그리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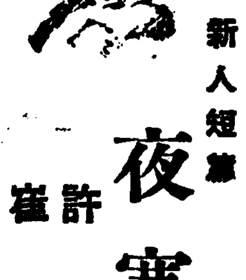
내친구中에는 [illegible] 夫人보다 대단히 未熟한 [illegible] 서 나는이러케 [illegible]

부연 문지가 지우의이것이 벽이오르는夕陽이다。

## 新人短篇

## 夜寒記 (十六)

許俊 作
崔根培 畵



그것은 아마 백금일 헌데두리에 동그라코 도톰한 구로다이야를박은 반지엿다

보통 보든것과는달리 헌데두리 둘레는 이도톰하고도 동구란 다이야는 모가 만히나게 여러군데를 꿀고루 깍거서 마치 물우에뜬 말근기름방울처럼 움즉일때마다 무수한 아롱진 문이가 발하야지는 아름다운반지엿다

「일부러 마치신건가봅니다 그런」

너무도 그테두리의휘비치 눈에 숨여서 남이뭇는말이다

「네 마쳣습니다 모두 데도마음에 맛지안코 알맹이도 그러케 동그란것이업서서요」

「아 그런데 반지는 왜 우리들이 온실이 생일날 사들이면 사들여알텐데 그러셋습니까」

인울정해서 궁금한말슴들이르던것입니다 그래 오늘 부나하고 이것도 들일려고해서습니다 그러케 못오실줄으모르고」

하며 부인은 숨을들려서

「그러케 대이부이실줄은 모르고요」

하엿다

「비엿대야 집에야 무엇이잇슴니까 허지만 아니올겝니다」

남도 사양하는말로 이러하엿다 그랫더니 부인은 갑자기 깜짝 놀라는드키하며

「그럼 왜 안오서요 선생님은 그럼 안오실줄알아섯습니까」

이것이 부인의 단순한 나무러움에서 나오는말이 아님은 남이 더 잘알것다 그럼으로 그는 아울싸하엿스나 허는수업시

「네」

하고만 대답하엿다 그리고 이와동시에 오소소한 오한(惡寒)이 어디서와서 번개와가티 등을 술메치올리가며 머리카락이 쭈뼛쭈뼛하는것을 느끼엇다 그오한은 오래동안울두고 다시 등을 술 흘러내리며 스루스루 전신에 퍼저들어가는것이다

「이것을 갓다들여주세요 저는 세상이 얼마남지아니한것을압니다 그리고 이것을보고 기억해 주십시사고 엿주어주세요 이 검은 어두운비츨 잇지마라 주십시사고요 그리고 온실이년의 구름두레롤한 검은안경을 잇지마라주십시사고요」

남은 부인이 왜 이것을 자기안해에게 부탁하는것인지 또 어쩌면 그러케들 잘아는것인지 무서운전률이 속으로 숨여드는것을 깨달엇다

—어떠케 이러케를 잘아는가 나는 어떠케 이러케 되여가는가—

「정 그러시다면 정 그래서안심이 되신다면 갓다전하기도 하겟습니다 허지만 역시 오늘이 아니라도 조용실터이니 언제 때뜻해지는날 부인께서 손소 주시도록하시지오 제가 갓다수어도 별다른것은 업지오만……」

「네 그러시겟서요 그것이 저도 나올것가태요 공연히 부인의마음을 거츠시게 해들일것도 업시……그럼 제가 뵙고드리겟서요 그리고 오늘 가뵈면 아니되겟서요?」

보니 무슨 비웃청거림이라도 잇스러니한 부인의얼굴에는 그런것이라고는 하나도업고 아까의 그괴가 몰켯다 겻첫다하든 만흔표정이 어울리여잇던 우수수한것조차 한점업시 도리어이제는 맑은티끌하나업는 호수와 가티 이러케도 평정하라하게 이러케도 침착하라하게 그면모에는차늘한것이 깔아안저잇섯다 거기에는 모든격렬함과 모든혼란함이잇는것가트되 다 그것을 제어하는 아름다운단념이지배하여 잇는것이다

「비는 다오신모양갓습니다만 오늘은 구만드시지오 남이 뻑울사합니다」

남은 병든부인을위하야 진심에서 이러하며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보앗다 그러나 부인의 마즈막으로한 마음을 거츨게해주느니 어쩌느니하는말들이 굴곤글자들이되여 시계경판우에서 얼룩거려 시간은 잘보이지안햇다 그리고 그굴곤글자들이 작구 몰려어 잔뜩 부려서 그유리우에 겹든디이야비츠로 엉기여버리는것을 그는 현기나는머리로 깨달엇다 아파 아찔하엿다 그리고 어찌하엿든 그는일어섯다

「온실이 아니 오는군요 아마 아버지를 못보엿는게지오 어쩌던 민군들아오시거든 제가 뵈일려와다가 못뵈입고갓다고 엿줘주시지오 별할말슴도 업섯습니다만」

남은 인사로 한마디그러면서 자기의 냉정한 정신을 표현하지아니할수업섯다

그리고 그는 허청하는 다리를 겨우 수습하며 대문을 나섯다

明治座 松竹キネマ
21日ヨリ25日マデ上映時間表
ニュース 11·00—1·09 2·33—2·53 6·45—7·12
2·55—5·04 7·14—9·23
1·13—1·43 5·08—5·38 9·27—9·57
1·45—2·31 5·40—6·26 9·59 510·4
次週 大船大地の要 封切

九月廿一日부터廿三日까지 每日晝夜二回 밤七時十五分 大衆料金階上廿錢階下十錢
◇新興키네마社作品 時代活劇 紅槍荒鷲隊 監督 山本松男氏 主演 天津龍太郞氏
◇松竹大船作品 人の日課 監督 宗本英男氏 主演 高杉早苗
◇グランドナショナル社超特作 全發聲日本版 グレイトガイ 主演 ジェムズキャグニ氏活演
京城府桃花町 電龍 二三三番 桃花劇場

九月二十一日부터四日間 大公開 每日三回興行 一回十二時 二回續映夜間七時半 大衆料金階上二十錢階下十錢均一
S·O·S氷山 (改訂新日本版) 아ー노루도·후앙구博士監督 유니버살超特作全發聲 레니마이·후엔숨 에루스도·우뎃드少佐 主演
松竹大船超特作全發聲 わが心の誓ひ 宗本英男 監督 桑野通子 主演
松竹大船特作全發聲 七ツ兒誕生 齋藤寅次郞 監督 小倉繁 岡村文子 山田長正 阿部正三郞 共演
R、K、O パテー社特作 軍歌集
電光 一七五五 第一劇場

九月二十一日早日三日間 朝鮮映畫大會 日祝祭日晝夜三回 普通正午早日 六時까지續映 普通日晝間一時 夜七時十五分始映 大衆料金階上二十錢階下十錢均一
◇朝鮮キネマ社作品(監督安鍾和) 短篇映畫
◇朝鮮語 사랑을차저서 全發聲 主演 羅雲奎 尹逢春 要フ 零ネテ
高麗映畫社提供朝鮮映畫社一回作 朝鮮語全發聲 春香傳 主演 韓一松 文藝峰
次週 ボレロ 太陽ノ子 紅槍荒鷲隊
豫告 暁十郞ノ戀 深夜ノマドンナ 不良少年 軍使 南京ノ王者 迷夢 誘拐團 曉ノ翼 喧嘩商會 鬪牛士 アルプス槍騎隊 乞期待
京城新堂町 電話本局 五六八 新富座

映畫は日活
二十一日より特別封切 (五日間)
◇メトロ社本年度大作 レオナード監督
ロバート·Z· 歌ふ密使
ジャネット·マクドナル ドアラン·ジョーンズ ワーレン·ウイリアム 主演
身は一介の歌姬、されど心は愛國の情熱が湧きたぎるナポレオン君臨する歐洲の戰雲の下で咲いた、强くも麗しい戀の觸發!凉く流れる陶醉の歌曲
◇日活京都特作 阪沼成治原作 稻垣浩監督
阪東妻三郞 主演 轟由起子
闇の影法師
時は慶應混沌たる世相に敢然立つて悪と闘ふ熱血兒!闇の影法師とは果して何者か?
朝日パテ ニュース
優樂館

## 昨年度 豆類生産總額
### 價額八千九百八十四萬七千圓 收穫高五百四十一萬二千百石
### 比前年一割三厘增加

昭和十二年度의豆類의生産數量及價額을調査하면收穫高는 大豆四百二十六萬二千六百八十八石、小豆 八十八萬九千六百五十一石 綠豆 十二萬九百十七石 落花生 六萬五百十二石 菜豆 一萬四千六百十石 豌豆 二萬四千七百二十二石 其他豆類 一萬九千十一石 合計五百四十一萬二千百十一石으로 其價額은 大豆六千九百四十三萬六千百四圓 小豆八百三十五萬九千四百六十九圓 綠豆一百五十三萬五千三圓 落花生四十八萬七千六百三十五圓 菜豆三十七萬九千六十七圓 豌豆 四十萬六千二十八圓 其他豆類 二十四萬九千五百五十三圓 合計八千九百八十四萬七千九百九圓이다

이것을 昨年에比較하면 收穫高에잇서서는 菜豆九百八石 (三分六厘)의 減少를 除하고는 大豆四十七萬八千四百七十三石 (一割二分六厘)小豆 十三萬五百五十九石(一割七分二厘)綠豆一萬五千五百二十八石(一割四分二厘)落花生八千百九十石(一割五分七厘)豌豆五百八十四石(二分四厘) 其他豆類六百六十九石(四分二厘) 이모두 增加하여 合計六十四萬二千九十五石(一割三分五厘)의 增加이며 價額에잇서서는 亦是菜豆一千四百四十五圓(四厘)의 減少를除하고는 大豆六百五十六萬二千八百廿四圓(一割四厘)小豆百卅五萬八千四百九十一圓(九分一厘)綠豆 卅一萬三千三百二十九 (一割四分一厘)落花生 七萬五千九百圓(一割八分四厘)豌豆 三萬六千四百四十九圓(九分九厘) 其他豆類 一萬三千四百二十一圓 (五分七厘)모두 增加하여 合計八百三十五萬八千九百七十圓(一割二厘)의增加를 示하엿다

## 江原道의特産 "大麻"增産計畫
### 道産業課具體案講究中

【春川】江原道의 大麻生産은年百萬貫을突破하야 全鮮首位를占領하고잇는바 이것을 原料로各農家家內工業으로짜내는麻布는三十萬疋、代金은 七十四萬圓이라는 巨額에達하야 高原地帶의農家副業으로는 極히有利한바, 道當局은奬勵助長하는 意味下에昭和十一年度부터 麻布檢査規則을制定하고 主産地인淮陽、平康、鐵原等地에 機業技術員을 派遣하야 在來麻布의 品質向上을圖하하야 完全한商品價値의 增進과 販賣改善等의 指導를加한結果時

戰時體制下에잇서 道産品愛히用奬勵品등으로 新用途를開拓하야 夏節用방석지또는 各種의카ㅣ바用等 廣範圍의 需要가잇서 産業課에서는 積極的增産計畫을세워新進出을 期할터이라한다

## 慶北堆肥改良增産 品評會審査

【慶北支社發】産米改良增殖計畫의 重要項目으로써 堆肥의 改良增産을 하고잇는 慶北道에서는 左記와如히 道農務課員이 一齊히 各郡에出張하야 堆肥改良增産品評會審査를 開始한다고한다

◆達城、軍威、義城、安東等四個郡은 伊藤技師、田代技手、金技手九月廿七日부터 十月一日까지 ◆慶州、永川、慶山、淸道四個郡은 神邊技師、本場、赤岡技師 九月廿五日부터十月一日까지 ◆靑松英陽、盈德、迎日四個郡은 小倉、樋口、中村技手等이 九月十九日부터 九月廿五日까지 ◆高靈、星州、漆谷、金泉、善山、五個郡은 梁谷小作官、福永技手、荒木技手 九月十九日부터 同廿七日까지 ◆尙州、聞慶、醴泉、榮州、奉化、五個郡은 富田、玉野、新方技手 九月十七日부터 二十七日까지

## 安東縣官荷驛에 明年度의移民計畫

【安東縣】長久縣府當局의 調査에依하면 安東省荷驛內에小作農四百四十三戶와 自作農制定一百八十五戶를 明年度에 移住키로되여 土地買收까지 決定하고 農務機關을 各村에 設置하여 低利金을 融通키로 되엿다는데 自作農은 十年에分하여 償還키로되엿다고한다 自作農은 지난八月부터 開墾에着手되엿다는데 그詳細한 地主名과內容은 다음의表와갓다고한다

## 豊基人蔘 檢査開始

【豊基】慶北豊基人蔘을 八月二十日부터 採掘을 시작하여 지난十四日까지 마추엇는바 十五日부터 蔘業組合檢査室에서 白蔘檢査를 시작하여 모든사람의 渴望하든바 新品白蔘도 오래지안어 나오리라고한다

## 榮州棉花共販

【榮州】棉花國策上 積極的으로奬勵하는바는 이미아는바이나播種以來 旱魃이極甚하야 憂慮中에잇섯스나 大體로 氣溫이順調로워 發育成績이良好하여 벌써棉花收穫期를當한 榮州에서는來九月二十五日부터 共販을開始하리라는데 重大한時局에 伴하야重要資源인關係上 本郡農會棉作係에서는 豫想數量의目的을 得하고저하는 見地에서 一般物價指數의趨勢를 考慮하야 公正妥當한價格을決定한後 共販出荷奬勵에努力하리라는데 事變以後廣唐木等이 昂騰되자 집안 主婦들은 무엇으로 衣服을 製作하나하고 애태우는 소리가 집집이자자하는此際에 棉花自家消費를抑制當한 一般農家에서는 絹業統制의 本旨에 順應하는 同時他物價昂騰에 比하여 今年度棉花共同販賣의 圓滑한 價格을希望하야 마지안는다하며 本郡棉作係의 發表에 依하면 今年度作付面積은 一、二二五町步로昨年同期에 比하야 四十三萬餘斤의 增收를 보리라는바 豫想價格은 一斤當平均十五錢以上 十八錢假量이라하며 郡內各共販期日은 如左하다한다

| | | |
|---|---|---|
| 榮州 | 每五日 | 十日 |
| 豐基 | 每四日 | 九日 |
| 甕市 | 每三日 | 八日 |
| 平恩 | 每三日 | 八日 |
| 芝谷 | 每四日 | 九日 |

## 穀用、肥料用叺 在庫總數(九月十日現在)
### ―産業協會調査―

産業協會調査에依한 穀用三斗叺、四斗叺、肥料叺의 九月上旬買入高와 九月十日現在在庫高를보면 다음과가튼데 三斗叺、四斗叺在庫는 各各四十六萬一千四百九十八枚와二百九十萬七千八百九十枚요 肥料叺은 一百二十一萬四千九百五十七枚나 需給圓滑은 到底히期하기 困難하다한다

穀用三斗叺

| | 買入總數 | 前年同期 |
|---|---|---|
| 京畿 本旬 | [illegible] | [illegible] |
| 京畿 累計 | [illegible] | [illegible] |
| 忠北累計 | [illegible] | [illegible] |
| 忠南累計 | [illegible] | [illegible] |
| 全北累計 | [illegible] | [illegible] |
| 全南累計 | [illegible] | [illegible] |
| 平北 本旬 | [illegible] | [illegible] |
| 平北 累計 | [illegible] | [illegible] |
| 黃海累計 | [illegible] | [illegible] |
| 咸南 本旬 | [illegible] | [illegible] |
| 咸南 累計 | [illegible] | [illegible] |
| 計 本旬 | [illegible] | [illegible] |
| 計 累計 | [illegible] | [illegible] |

肥料叺

| | 買入總數 | 在庫數 |
|---|---|---|
| 京畿 上旬 | [illegible] | [illegible] |
| 京畿 累計 | [illegible] | [illegible] |
| 忠北 上旬 | [illegible] | [illegible] |
| 忠北 累計 | [illegible] | [illegible] |
| 忠南 上旬 | [illegible] | [illegible] |
| 忠南 累計 | [illegible] | [illegible] |
| 全北 上旬 | [illegible] | [illegible] |
| 全北 累計 | [illegible] | [illegible] |
| 全南 上旬 | [illegible] | [illegible] |
| 全南 累計 | [illegible] | [illegible] |
| 慶北 上旬 | [illegible] | [illegible] |
| 慶北 計 | [illegible] | [illegible] |
| 慶南 上旬 | [illegible] | [illegible] |
| 慶南 計 | [illegible] | [illegible] |
| 黃海 上旬 | [illegible] | [illegible] |
| 黃海 計 | [illegible] | [illegible] |
| 江原累計 | [illegible] | [illegible] |
| 咸南 上旬 | [illegible] | [illegible] |
| 咸南 累計 | [illegible] | [illegible] |
| 計 上旬 | [illegible] | [illegible] |
| 計 累計 | [illegible] | [illegible] |

穀用四斗入

| | 天地人九月上旬買入數 | 一月以上買入累計 | 在庫 |
|---|---|---|---|
| 京畿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忠北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忠南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全北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全南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慶北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慶南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黃海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平南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平北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江原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咸南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計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購入數比較 前年累計 [illegible] 本年度累計 [illegible]
增 [illegible] 販賣 本年度 [illegible]

## 鐵原産新正租 九錢八厘로取引
### 昨年度보다七厘高價

【元山】今年度新正租가 鐵原市場에나와다 지난十二日鐵原産地初新正租六十叭을 元山丸三、木本兩精米所에서 처음取引하얏는데 그市勢는 九錢八厘로서 十二年度의九錢一厘에比하야 七厘의高價를보엿다

## 慶山棉花共販開始

【慶山】慶北慶山郡農會棉作係에서는 本月十三日부터 慶山河陽等三個所販賣場에서 棉花共同販賣를開始하엿다는바 今年總販賣豫想高는 一百五十萬斤으로本月十五日까지 共販數量이 合二萬二千斤이라한다

## 八千町步貯水池에 淡水魚養殖計畫
### 黃海道産業課硏究中

【海州】淡水魚養殖으로因한 內水面의利用開發은 農村經濟에寄與하는바크뿐아니라 農家副業으로서 또는農事經營파密接한關係가잇는바로 總督府當局에서 昭和四年以來 淡海養魚場의稚魚를 無償配付하는等 그指導奬勵에注力함에따라 各道에서도 이點에 만흔留意를거듭하고잇는터이라는데 黃海道는 管內各水利組合과 大農場의貯水池總面積이 八千餘町步라는 廣大한區域을가지고잇스나 아직까지 積極的指導奬勵에 進出치못하고잇는形便이다 그것은淡水養魚에잇서서는 相當한施設을必要로할뿐아니라 專門技術의 指導研究를要하게되므로써 금번 道産業課에서는農務課와提携하야 八千餘町步의最適水面積과 京城、平壤等 販賣地의接近等 가장有利한條件이 賦與되여잇슴을參酌하야 積極的으로 그指導奬勵에進出키로計劃을樹立하고目下그研究에沒頭하고잇다한다

## 柞蠶絲用途 擴大에進出

朝鮮貿易協會에온 安東出張所로부터의情報에依하면 滿洲國에서는 羊毛、棉花의輸入制限에依하야 此等의代用品으로서 滿洲産柞蠶이 現代의寵兒가되여 各方面에歡迎되여잇스며 그用途의增加는 오직接手即柞絲로서의用途가 漸次擴大하는趨勢에잇슴으로 柞蠶絲로서는 依然新販路開拓이업서 甚히遺憾으로생각되엿는데 이見地에서 今回安東의 柞蠶製絲業組合은 全國作業地에向하야 柞蠶絲의寄贈을하야써 其混織에對하야 考慮研究를하게하고 그製品은 一段組合에서 買上한後 見本으로서 日滿主要地에 配付하야 柞蠶絲用途의 徹底的擴張工作에 進出하게되엿다한다

## 元山營業倉庫入庫 八月末現在十五萬個

【元山】元山商工會議所 調査에依한 지난八月中 元山營業倉庫의貨物出入狀況을보면 前月持越十七萬九百二十個에 入庫二萬二千八百十五個 出庫五萬三千六百九十九個로서 月末現在高는 十五萬一千四十七個인데 그內譯은 다음과갓다 ▲籾現在高 五千五百八十四叭 ▲玄米四萬九千五百五叭▲白米二千二百五十五叭▲大豆一萬七千七百四叭▲小豆一千八百二十九叭▲粟一萬一千六百十七袋▲麥酒一千六百九十五個▲明太魚一千四百十七駄▲미역九千五百三駄▲세멘트二千六百七十九袋▲肥料一萬九千一百二十三個▲紙叭箋一萬二千二百七十五個

# 남편에게 림질기운이잇스면 반듯이 부인께 전염됩니다

림질의 병화근은 남녀국부조직에뿌러백힌병균이니 직접 환부에처료하여야만 단시일안에 근치됩니다

東京田谷泌尿科病院長 醫學博士 田谷利男

첫가울날에는 몹시병세가 중하게되는 때입니다 그것은 몸의신진대사기능이 줄어지못한 때이므로 그러케몹시고롭과 담배이나와서 여러분께 더욱심한고통을 주고잇스니 하로바삐 정당한치료법으로 고처주시사 이시세에 맛당한 튼튼한의몸이되어 주십시요 어느분을불론하고 속히병고에서 버서나시라고 애쓰시겟지마는 림질의병화근이 남녀국부속인것을 똑똑히 깨닷지못하신분이 게시여서 림질도 먹는약으로 낫겟지하는생각으로 장복을하시고 게시나 그릇됨이아마병세를 더욱중하게만들고게시나 여러분께서는 그러면 이엇지 百發百中으로 根治되는 『부다오銀겐고ㅣ루』의 一重殺菌療法으로써 직접병화근에 처료하시사 속속드리뿌리백인 림균을 멸살하시고 根治의기쁨을 속히어더주십시요 더구나 男便께림질기운이잇스면 반드시 부인께 전염되오니 두분이가티 협력하시사 남편께서는 겐고ㅣ루一號와 二號로 부인께서는 二號를써서 엇중한 조섭파하게 치료하시면 단시일안에 꼭 根治되는약이외다

## 엇재二重殺菌을 해야만 림질은 곡根治되는가

의사 전문약인「부다오銀겐고ㅣ루」는 재래의정당한치림제 (국소약)의단일성능에비하야 이중의효파를가지고잇는약이니 즉 직접환부에 작용하는약일지라도 사람들조직파 병균이 살어잇는여상 치료중 변화가 생기게되니 여것에 합당하도록하여서 특효를 내게한것이 一重殺菌療法입니다 그러므로 급성중세의분이나 만성중세의분이라도 『겐고ㅣ루』의 一號를쓰시고 二號를계속하야 치료하시면 유명한病院치료와 똑가튼효과를 자택에서도 엇게되야 百發百中으로短時日안에根治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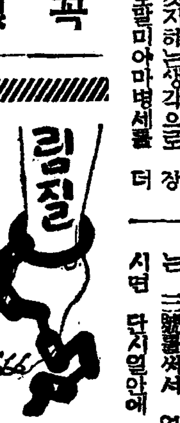
―○―

여기에 미리말삼드려둘것은萬一「二號」와「二號」를섞어서쓰면엇더케되느냐하면결국한가지의약효밧게 내지못하게되므로역시 재래의單一性能을가진 치림제와 가튼효과밧게엇지못하게됩니다

약한방울로 단二分間이면 처료효과가 나타나는 림질근치약 『겐고ㅣ고루』의약가는 各號가 갓흔가든니보큰약…一圓九十錢 十七日分…三圓八十錢이오며본보애독자께는 우대로 송료사실철전을 부담하고, 대금인환으로도송약해드림니다

東京市芝區通新町十三ノ一 總代理店 合名會社 淸原商店 (振替東京三五〇一九)

(日東製藥合名會社製品)




림질 一生의고질에서 벗서난기쁜實例

## 갑싸고 곳 낫는것이 저를 살려주엇습니다

(咸南) 朴成龍

…早老하야 생활의곤난과싸우든나의半生은 평탄하고재미란도모지 맛보지엿섯습니다 이러한나에게 림질에 걸렷다는것은 참으로 청천벽력이엿습니다 집안의형편도 형편이려니와 나의신세로서 어병에걸린것은 후회하자니 것잡을수업는 기믄마음에빠지것엿습니다 병원에는 갈수업는 형편이라 前에들지안흔 선전광고에서良藥을차자내기에골몰하엿습니다 삿삿치 들처일일히읽어보앗스나 모다그럴듯하야 甲乙을 가릴수업스니 결입혼 아이입니다 적은돈으로 어떠케하면 根治를바랄수잇스랴! 藥고르기에방황하다가 선뜻눈에띄인것이 부다오銀겐고ㅣ루입니다 설명문을읽어 내려가는중에 어느듯 나의병은나은듯한 감이생겻습니다 그만치 친절이와가웟게 희망으로나 설지로나 정당하다는 글이 나에게 확신을 만들어주엇습니다 買約하엿다하고 겐고ㅣ루의一號와二號의소용을주문하엿습니다 한두번치료에 완연 고통이사라저 나와 우슬드자자맘어지며 고통도어서지서 다시금 건강케되엿습니다

# 부부협력하여 곳치자!

K-2 94



# 傳染病이流行하오니 입으로들어오는병균을막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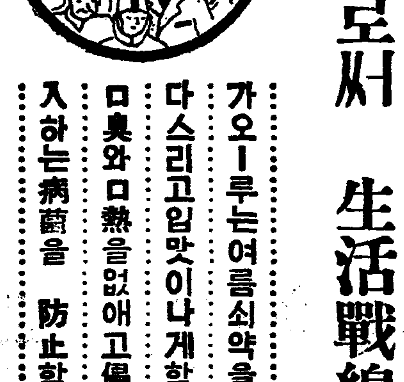
## 口中殺菌劑

입으로들어오는병을막고 정신을상쾌하게하는

# 衛生口錠 カオール 가오ㅡ루

## 요새에심한病魔를 征服하서야될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의健康保護神인 가오ㅡ루를복용하여주시사 늘입으로들어오는病을막으며 몸을튼튼하게하고 精神을상쾌케하야 모든일에능률이나도록하는 藥効로써 生活戰線의勇士가되어주십시요



가오ㅡ루는여름쇠약을 다스리고입맛이나게함
口臭와口熱을없애고侵入하는病菌을 防止함

피곤하실때 일에실증이나실때 음식후 喫煙후의二三粒은 원기를도다주고 일에能率이나게함

★ 三千里坊々谷々에서大歡迎을받고잇는銃後의衛生保健運動을全鮮有力藥店과協力하야開催하고잇는중입니다

定價와容量

| | | |
|---|---|---|
| [illegible]入 | (十錢) | 百粒 |
| 同 | (二十錢) | 二百五十粒 |
| 携帶用防濕瓶入 | (三十五錢) | 三百粒 |
| [illegible]容器付 | (三十錢) | 三百粒 |
| 御勾玉形容器付 | (五十錢) | 五百粒 |
| 鞄形容器付 | (五十錢) | 五百粒 |
| 光琳蒔絵美術容器付 | (五十錢) | 五百粒 |
| 保健容器付 | (五十錢) | 五百粒 |
| 德用瓶入 | (五十錢) | 八百粒 |
| 同 | (一圓) | 二千二百粒 |

東京市日本橋區水天宮前
本舖
株式會社 安藤井筒堂藥品部

# 企業家들을要注意

## —勞働者의人格的優待와 부질업는爭奪戰中止等—

## 平南警察部에서警告

【平南支社發】최근노동계의 동향은 어찌되어잇는가? 평안남도 경찰부당국에서는 이에관하여 얼마전 각기업주와 판계각방면에 다음과가튼 경고를 발하엿는데 이에의하면 근자 노동자의 실질임금지수(實質賃金)는 현저히 저하하여 노동계급의 생활을위협하고잇는 실정으로 노동자의 시국인식이 노끄며복구하고 노동쟁의는 (수자는 發表수업스나) 최근 또다시 격증하는 경향이 농후하니 이대책으로 업자들은 노동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며 복리시설(福利施設)을 정비하여 노동자로하여금 사보국에 정진케하도록하라는것이다

一、勞働爭議에 關한件

軍需工業의 飛躍的發展等에因한總行的經濟現狀은 平和產業에對한重要物資의 供給遮斷、使用制限等과 相俟하여 物價의昂騰을 促하고 勞働賃銀은 若干增額하고있음에 不拘하고 實質賃銀指數는 顯著히 低下하고勞働階級의 生活은脅威하고잇슴과如한 實情으로 勞働爭議는 勞働者의時局認識에依한自制의觀念이 一般으로高揚하고잇슴에 不拘하고最近時局勃發前의傾向을거더 企業經營內에잇서서의 思想運動의 浸潤 階級運動의萌芽等에關하야 勞使雙方共의 利益에잇서서 業者는勞働者의 生產部門에잇서서의人格을認定하고 勞働條件의 改善과 福利施設의整備를 圖하고 勞働者로하여금 勞資一體 產業協力精神下에 指導하고 勞働事故의 未然防止에 努力하는同時에 企業의圓滑한 發展을謀하여 銃後의 物資動員에 支障이업도록할것을 期할것

그리고 전기경고와아울러 최근 각종사업、공사가 발흥하나 노동자가 극히부족하여 처처에서 쟁탈전을연출하는것은 여러가지점으로 폐단이만타하여 판계자들에게 역시다음과가튼 주의를 환기하엿다한다

一、勞働者爭奪에關한件

各種資源의開發、諸事業의勃興에因한 朝鮮內勞働力은顯著히不足을告하고 特히 軍需產業機構의 飛躍的擴充에因한 軍需工業勞働者의 不足은 더욱이傾向에 拍車를加하고 各企業者는 其企業經營內의 不足을 滿足시키기爲하여手段을選하지안코 勞働者의爭奪을하는者잇는바 이와가튼것은直接治安을害할뿐아니라 勞働者로하여금 부질업시各地의 鑛山을 轉轉케하고 浮遊性을 馴致하여放縱한 生活秩序를 破壞케함에至하고 나아가서는 事業의圓滿한 發展까지도 阻害할것이므로서 注意하도록할것

형편이여서 그러지안허도 말썽으로이름난 정광이 또한번요청할뿐이 업지안흔것이라고 일반의기대는 적지안타

## 安東縣朝鮮人村長 朝鮮各地視察

【安東縣】안동현조선인촌장 이십여명과 기타관계자등 일행[illegible]명은 다음의 일정에의하여 오는 시월사일부터 십일일까지 팔일간 [illegible]씨의 인솔하에 조선각농촌과 산업상황을 시찰키로되엿다고한다

▲視察日程

十月四日 定州邑事務所實務狀況一泊

五日 同郡內 模範村과農事施設

六日 水原 勸業模範場、模範村落、高農校實習場

七日 同郡 郡廳과邑事務所實務狀況、市內

八日 京城 朝鮮神宮參拜、總督府見學、志願兵訓練所、各新聞社、市內一泊

九日 京城 各社會事業施設과施設、紡績會社、各麥酒會社 午後 仁川 社會事業施設、港灣

十日 仁川 魚市場、製粉會社、其他、月尾島、市內

十一日 安東縣着 解散

## 全州府會議員 勇士遺家族慰問

【全北支社發】구월십팔일 만주사변 기념일을 당하야 전주부회의원들은 동일오전십시 다섯반(班)으로 분반하야 전주부출신 출정용사와 유가족의집을 방문하야 [illegible] 위문품을 드리고 위문방을 전달하엿다한다

# 野獸가튼老總角 行商女에게暴行

## 被害者는一個月治療의重傷

【開城】하룻밤에 다섯번이나폭행을 햇다는 실로담만드러는 짐승가튼 인면수심(人面獸心)의 사나이가 개성서에 체포되엿다 본적을 인천부화정(仁川府花町)에 두고 인조견행상으로떠도는 김순옥(金順玉)(二○)(假名)은 지난 십팔일밤 아홉시경 개성부외 광덕면사분리(光德面寺分里)의 진사길에서 날이저물어 배회할새 때마침 동리청년 이번지사는 변순천(邊順天)(二○)이란 머슴의 생각놈이 그를보자 완강히 저항하는 순옥에게 위협폭행을 비트러 꺽는등 가지폭행을 가하야 혼도상태에 빠지게한후 순수린 지경파가티 달려드러 두번이나 욕을보엿다 그래도이자는 만족치안흣든지 동리 김모(金某)의 집에 여숙을 정한순옥을 그날밤 열두시경에 다시 침입하야 빈사상태에 빠저느러진 그에게 또세번이나 폭행을 가하고 도망가던바 지난 이십일 이급보를 접한개성서에서는 박사법주임(朴司法主任)이 형사대를 대동하고 현장에 급행해서 범인체포에 협아활동중 그곳기프산중에서 이자를 체포압래하는동시 피해자는 직시 개성도립의원에 입원하야 가료중인데 약일개월간의 치료를요하는 중상을입고 신음중이라한다

## 照明彈

강원도일대에도 나병(癩病)환자가 이백여명이나 유랑하고잇다고

○

이야기만드러도몸쌀이 저절로 찌푸려지는 그환자들이 매일늘어가지고 촌가로 횡행하고 잇슴은 참으로 위험한일!

○

이현상이야말로 조선사회가아니고는 볼수업는일

○

당국은 좀더 그들수용기관을 확장하야 문명사회에 망두가티 업도록 퇴치하기를 바랄뿐

# 組合長以下引責

## 問題는이로써一段落

## 求禮郡內의某水組事件後聞

【求禮】마산수리조합당국에 부정사건이잇다하야 세간에 소문이전파되고 그간여러가지 풍파가잇다가 맛첨조합원대중의 불평이폭발하야 조합원의 임시대회까지 보게되엿고 그진상을조사하기위하야 동대회에서 조사위원을 선정하엿다함은 기보와갓거니와 임시대회가끗난후 조사위원들은 계속하야 이른바부정사건이라는 유개조항을 조사한후 조합당국자에게 이번사건에대한 태도와결의(決意)여하를 분명히하여주기를 요구하엿다고한다 이결과미안한뜻을 표명하면서 조합장한(韓)씨는 조합의 정화를위하야 또는 감독관청의 한책임문제로보아 단연이책사임할것을 언명하고서기추모(秋某)도이미못을 결정하고 십구일부로 사직서를제출하엿다하며 아프로 조합의명랑화를 갈망한다고말하엿다한다

나는 조합원임시대회의의판계도잇고하야 조사위원회합계조사를하엿는데 호대한장부를 짧은시간에 세밀히할수는업서서 문제되는 유개조목만드러서 대강조사를하엿습니다 사건의일부는 문제의 장본인도 시인을 하엿스며 대체로보아 사건은 드른바와가티 그리큰흠이잇지안흔듯한데 평소에 오래두고 너무전횡을하야 이방을입혼것이중요한 원인인듯한데 조합당국자가 기프게책임감에서 용퇴를결정하엿스니 사법권문제이라거나 이이상사건을 확대화되지안토록 힘쓰는것이 올켓다고 이로써 사건은 일단락을 지은리라고생각합니다 운운

# 滋滯된春川"市計"

## 幹支線道路實測만은完了코

## 區劃整理認可苦待中

【春川】춘천시가지 계획령(春川市街地計劃令)은 금년삼월경에발포되엿스나 시국판계로 기채를할수업서 사업진행에 여러가지지장이만하여대체로중지상태에빠저잇스나 이십칠개소의 간선도로(幹線道路)실측만은 끗이나고 아프로 세도로(細道路)실측을하는중이며 제일중요한 구획정리(區劃整理)도 방금총독부에 인가신청중으로 인가가 나는대로 곳착수하야 삼개년사업으로 계속실시할터이라는바 이구획정리구역은 전평리(前坪里)일대와소양통(昭陽通) 이삼사정목 본정과 화원정(本町花園町)일부도드러가게된바 총면적은 이십만팔천사백팔십평으로 정리진전에따라 현재가옥등의 이전도 만히잇스리라하며 토지소유자들은 일정한 기한내에 신청을 하지안흐면 아니되리라한다

## 大東高女生 水害救濟金依賴

### 本社大田支局에

【大田】대전대동고등여학교(大東高等女學校)생도들은 지난번 북선에서 미증유의 수재로먹을거와 입을것을 모주리 수마에게 빼앗기고 엄동설한은 닥처오는데 굶주리고 헐버슨동포들의 자녀에게 보내여달라고 지난이십일일 현금십사원이십칠전을 본사대전지국에 의탁하여왓스므로 대전지국에서는 즉시본사로 송금하엿다

# 樂觀되는慶北米作

## 憂慮되던旱害의影響도輕微

## 二百六十萬石臺不下

【慶北支社發】경북일대는 미곡의산지로서 전북에다음가는 미창지대로 연이백팔십만 내지삼백만석의 실수를 보여왓던바금년은 도내일원의 미증유의 대한발로 말미아마 달성(達城)영천(永川)등지는 국부적으로 대흉작상태에빠지 달성군내 실수예상은 평년도에 비하야 십할육분내지 사할여의 감수를보고잇는터로 지난이십일에 도농무과에 도착한각군의 정보를총합해보면 전년도에비하야 약이십만석의 감수는 예상되나 전도의 총수확에잇서서는 약이백육십만석에 달할모양으로 평년작에서는 별로 떠러지지안는 의외의 호성적이 예상된다고한다

### 共販目標數量 一百五十萬石

별항보도한바와가티 경북도내 금년도 작황은 장기한발로 말미아마 전년에비하야 약이십만석의 감수를 예상하는현상이나 총실수에잇서서는 약이백육십만석에 달하리라는바 장기전하산미의 중요성에비하야 실수이백육십만석중에서 일백오십만석을 공판에 부칠터이라고한다 공판일백오십만석이라는 수짜는 이때까지 보지못한 비약적수자로서 이를 전년도에비하야 보면 실로잠배에달하는수자이라고한다 즉거년도 총수이백팔십만석중에서 공판계획은 육십만석에 불과하엿든것이라고하며 더욱이거년도 공판출회실적은 일백삼십만석에 달하엿든 것이라고하야 당국에서는 목표한일백오십만석도 넉넉히 공판에 부칠수가 잇스리라고 하는바 거년에비하야 이십만석의 격감을 본경북도로서 일백오십만석의공판출회가 잇슬는지 의문시된다고한다

# 惡德舍音取締!

## 秋收期에忠北道各郡에嚴達

【淸州】충북도 농조진흥과에서는 추수기에잇서서 악덕사음발호를우려하야 사음설치、변경、폐지등의계출 불량사음에대한 경고、규번경명령또는 처벌등에의하야 종래부터 엄중취체하여왓는바 금년도 추수기를 목전에 두고 도당국에서는 철저적으로 이를 취체할방침으로 동취체의 만전을 도모하도록 도내각군에 엄달하엿다한다

# 移民問題協議會

## 鐵嶺金融會主催로

【鐵嶺】강덕오년도집단이식민사무처리위원회(移民事務處理委員會)의회의를열것처 만주국의조선인이민에대한금후방침이 변경되면서 지역적제한이 철폐된것은 기보된바나 어떠한 방식으로 이민취급이될지 당지농장경영지들 비롯하야 소작인들까지 아조궁금이역이든바 당지금융회로서는 구월이십일오후일시 당지공회당에서 강덕오년도제이회농무계장겸농협의회(農務契長會議)를열엇는데 동시에좌기제건축협의하엿는바 여기에산업부척정사 제이지도과장(產業部拓政司第二指導科長)만선척식주식회사지도과장(滿鮮拓植會社指導科長)금융회연합회평전이사(金融會聯合會平田理事)가 입석하야 이민취급방침에 대하야 선전의취지급 사업내용에대하야 이민에대한금융회의책임과정세에대하야 간절한 설명이 잇섯스며 제반질문에응하엿다

◇協議事項

一、集合移民入植可能戶數調查에關한件

(1) 新規入植可能戶數

(2) 已住鮮農戶數

二、土地買收에關한件

(1) 將來買收見込面積及買收價格

(2) 地方小作慣行

三、分散移民에關한件

已住鮮農이各各朝鮮에서 新이

## 水害의定平에 探鑛客이遝至

【定平】이번 대수재로 말미아마정평의 피해액이 일천만원이상에 달한다는것은 이미보도한바어니와 대자연의 변화란무궁하여 벌판에아수 쓸데업는너르디너른 못(池)이 모래와유리

# 黑船禁足은解除

## 燃料問題와五百船員事情考慮

## 平南道서愼重準備

【平南支社發】호열자방역을위한 선박정지(船舶停止)명령으로 대동강의운수가 일체중단된중 특히석탄의 수송은절대로 동절기를압두고 무연(無煙)탄이송과연료계(燃料界)에미치는 영향이지대할뿐아니라 석탄배(黑船)의선부 오백명의 사활에 관련되므로 판계업자들은 도당국에대하여누차간청하는바 잇섯는데 당국에서도 석탄수송의중대 긴급성에감하여 서부오백명전부에예방주사를실시하고 도재검사를 시행하여 만반의준비를 다한후 에이십사오일경부터 석탄배만은 운항을허가하기로되엿다고한다

## 開洋丸도解除

【海州】지난구일 진남포에서해주항에입항한 개양환(開洋丸)승조원중에서 건강보균자한명을발견한해주경찰서에서는 보균자리강신(李康信)외승무원을 동강면산중에격리하고 그선박을 금족시켜오든바 그당시 보도한바어니와 그후조사에서는 전혀음성으로판명될뿐아니라 그후 한등이상을이르키지 안케되며 십팔일 해주항구재소의과 조선세멘트 해주공장직원이 협력하며 승조원과동선내부급 부속기구들을 일체대소독하고 신선한용식료품과 음료수를 제한외에는 적재하엿든노물은 전부하선매몰(埋沒)시킨후 십구일 오후한시 신의주로회항할것을 명하며 즉시출항하엿다 이것으로금족이래 십이일만에 완전이석방되엿으로 동십일에입항한 대안환(大安丸)도 이십일경과를보아여시금족해제를보게되리라한다

# 百餘少年少女들 就職申請스롬!

## 奉天交通會社의背信

【大田】봉천에 본사를둔 봉천교통주식회사(奉天交通株式會社)에서는 얼마전에 대전부에『뻐-쓰』차장으로 쓸터이니 십팔세미만의 조선인소년소녀를 백명가량 모집하야 보내여달라고 대전부청(大田府廳)에 의뢰하야 왓스므로 동부에서는 먹을것과 입을것이업서 굶주리고 헐벗는 빈한한 소년소녀를 구직하야주는 의미로 널리 모집하얏든바 불과얼마동안에 지원자가 일백삼십여명에 달하얏스므로 수이 전형(詮衡)하야 이송하라고하얏는데 웬일인지 졸연소용이업스니 보내지말라는 공문이왓다 한다 동부당국에서는크게낭패하야 전기교통회사에 즉시항의공문를 발송하는바편 지원자처지문제에 매우곤난한 처지이며 그들소년들은 만주에가서라도 벌어먹고 살겟다고 업는돈을 좌우로주선하야가지고 건강진단(健康診斷) 사진(寫眞)등에 이삼원식드려 제출한것이 허사은커녕 도로혀 다대한손해만입히게되얏다 이와가튼 부정회사에 기만되얏다하야 일반사회의 여론이 대두하고잇다한다

## 經濟警察官 十月一日設置

【新義州】전시경제의강화를 위하야 부정상인에게 엄중한감시를하고저 조선에도 경제경찰제도가새로히 설시됨을따라 평안북도에서도 시월일일부터 실시하기로되얏는데 종인원은 삼십일명으로 경찰의주무과(主務課)인도보안과에서 방금그인선을 급히하고잇는중이라는데 보안과 안에는 과장밋해 주임으로경부한명이잇고 그미테 경부보한명 순사십명 기수한명 상용자이에 사무원이잇고 경제지식이 풍부한 자들을 충당하야 한게 여덜명이 내무를 보게되얏다한다

---

長篇小說

# 林巨正【165】

洪碧初作 金熊超畵

평산쌈 (六)

진시말(辰時末)이 다되어야 해가뜨는 시월그믐께 하관시(下棺時)가 사시초(巳時初)라 시각을 대기가 바쁘지마는 광중은 전날나제 만들어노코 달뜨로비는 전날밤에 다해노흔까닭에 일이물리지안코 제시각에 하관하게되엿다 오시(午時)전에 평토(平土)가 뭇이나서 반우(返虞)전에 김산이가 떠나갈때 김산이가 어불전삼일후에나 가겟스니 우리게서들기다리지안흐롤 기별좀 해주시우

하고 부탁하엿다

리춘동이가 일부러다려다 울라오는것을 김산이는 이왕 보아준일이니 끗까지 보고가라고 마저보고간다고 춘동이를 먼저 나려보내고 한낫이 지나기까지 산에잇다가 춘동이집으로 나려와서다 춘동이는 대장깐에 나가서 집에업고 춘동이 어머니가 아래방문을 열어주며 들어안즈라고권하는데 김산이가 춘동이의 대장일하는것을 구경하러간다고 동네바깟잇는 대장깐을 차저나왓다 계뎌지가튼 대장깐속에 맨뒤에는 엄쭌하나가 풀무우에올라서서 복아질을하고 풀무압모루뒤에는 춘동이가 왼손에 집개를고 바른손에 마치를고 안젓고 춘동이아페는 달은일꾼하나가 모루채를 집고섯고 대장깐바깟는 동네사람 대여섯이쪼그리고들 안젓는데 춘동의 마주안즌 두사람이 고누두는것을 달리사람들은 여페서 구경하는 모양이엇다 춘동이가 불속에서 발가케 단쇠를 집개로 집어내서 모루우에 노코 모루채질할꼿을 가르치듯이 마치로 또닥또닥 뚝뚝치는 아페잇는 일꾼이 집고섯든 모루채를 어깨우에 둘러메고 모지라스럽게나리처다 딱 또 딱 모루채를 마진뒤에 모루채 자국을 다듬듯이 또닥또닥 마치질을하야 그쇠를 다시 불속에 집어너코달군쇠를 집어내서 한바탕 모루채로 치이고나서 바른자락 구을 물에 담거서 내노핫다

『천보 가저가게』

춘동이 말에 고누구경하든사람 하나가 대답하고 들어와서 달거내노흔 독기날을 들고 한참보다가 대장깐에 나가안저서 숫돌에 갈엇다 쇠 불리고 의이고 달고는것을 김산이가 대

『어서 일이나하게 나는 여기서 구경하겟네』

『내일 벌매 간다구 독기들을 버리달래서 좀버나왓는데 자네 나려오기전에 다해치운다는것이 그러케 못돼네』

『어머니한구 이야기나하지 왜 나왓나』

『자네 일하는 구경하려구』

『그럼 잠간만 기다리게 얼른 다해치움세』

『천천이하게』

김산이는 천천이하라고 말하얏지만 리춘동이는 일을 몰아처서 모루채소리가 전보다 훨씬 자저젓다 리춘동이가 두번 불릴것을 한번으로 주리고 여의일것을 여넘은번에 그치고 덤벙덤벙 담거내서 각기 임자들을 불러주엇다 고누두든 로총각하나가 독기날을 들고보면서

『이러케 거정으루 버려서는 하루두 못쓰구 돌후 무되지겟소』

하고 두덜거리니 리춘동이는

『여게 이사람 한번 용서하게 이담뻬에 마면구 잘 버려줌세』

하고 너스래를 노하다 리춘동이가 집개마치 다노코 일러서서

『뒤는 너의들이 다 치우구 들러오너라』

하고 일꾼들더러 말을 얼른고 동우에 올라와서

『자 인제 들러가세』

하고 김산이 보고 말하얏다 김산이가 리춘동이와가치 동네로 들러오는길에

『자네가 일꾼들더러 해라를하니자네게무어되는사람들인가』

하고 물으니 리춘동이가 우스면서

『왜 일꾼들더러 해라못하나』

하고 되물은뒤

『전에 아페두구 부리든 아이들일세』

하고 말하야 김산이는 전날밤 일꾼듯는데 젹정이말을 펼처노코 물은것이 배로소 해주(解說)이 되어서 고개를 여러번 끄덕이엇다

---


牙山支局 [illegible] 一○五

간질

「경련」을고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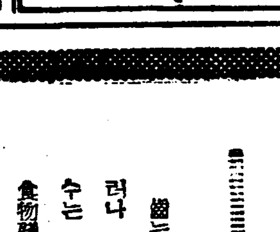
(無代進呈) 癲病說明書 (再生錄)

本病은 어데서나突然경련을 이르키고 卒倒하야 實로危險한病인故로 家庭的療法으로 未然에 고치지안으면 안됩니다 이實驗療法에 永年沒頭한 나는病者를 救하기爲하야 藥劑를 다한 百頁의實驗本을 發行하고 發作을 豫防하고 無代進呈하며多年 無數한全快한 實驗者로부터 謝狀이잇습니다 苦生하는당신은 곳 和歌山市?町(城の側) [illegible] 에게至急葉書로申込하라

離乳期！混合榮養 ラクトーゲン (라구도겐)

クーポン
離乳期의混合榮養으로第一失敗가업는것이 ラクトーゲン입니다 그것은硏究의結果 거이母乳와다름이업게 만든것인故로
離乳의失敗는 離乳의硏究의因 離乳의初期는只今、離乳의指導書를贈呈하려는所以 クーポン과三錢切手를 ラクトーゲン本舖에 (大阪中央私書函二五)

山葉ピアノ
國民精神總動員は音樂から
月賦の便法あり
日本樂器會社 京城出張所
京城府本町一丁目


桃屋의 花らっきょう
秋節의食卓에 消化를돕고 食慾을增進함
各百貨店及食料品店에잇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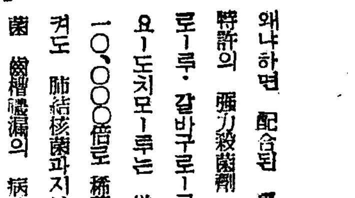
歯と身体を強化する…

藥用 クラブ歯磨 (구라부)

強力殺菌劑 クロール・カルヴァクロール及びヨードチモール配合

衛生과…
「健康增進」을爲히 一日도缺치못할
齒
齒의 使命이 益益重大하게되엿습니다 口腔衛生의 保全은 勿論 나아가서는 身體의健康을 强化하는 齒磨가 體位向上의秋……要望되고잇습니다 그런意味로 생각잇는분들은 藥用クラブ齒磨면은 殺菌淸掃力이 强하야 安心이된다고……益益愛用되고 잇는것도 當然한일입니다

★ 왜나하면 配合된 特許의 强力殺菌劑 구로-루·갈바구로-루와 요-도치모-루는 併用켜도 肺結核菌과지브스菌 齒槽膿漏의 病菌인 化膿性球菌類를 死滅시킬만치 優秀한것인故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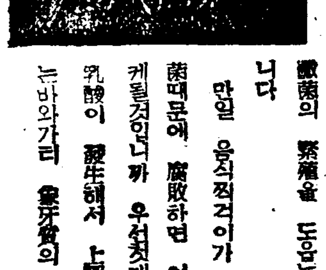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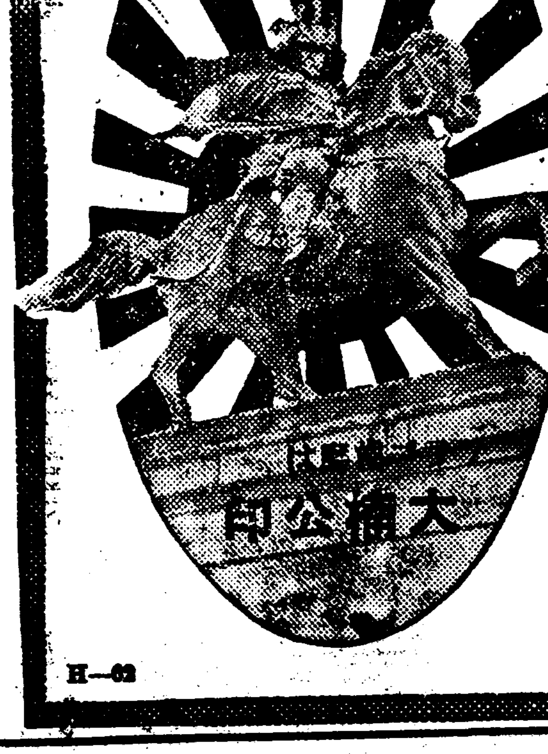




그우에 クラブ齒磨는 뛰어나게 優秀한淨化力과 滲透力을 가지고잇서서 虫齒의 黴菌을死滅시키는 것은勿論 齒根을 强化해서 齒槽膿漏을 豫防하고 淸新快適한 香味는口臭、口熱을 업새고 食慾을增進시키는 것입니다

クラブコトモハミカキ
クラブ煉齒磨……十錢 十三錢以上各種
クラブ半煉齒磨……十八錢 廿五錢

ムシ歯は何故できる？ 如何して予防するか？
(충치는 어째되는가 어떠케예방할가)

齒는 닥기만하면 虫齒가豫防되는줄 一般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完全히 口腔을 殺菌淸掃하지 안흐면 虫齒를 豫防할수는 到底히업습니다 어째든 죽-서잇는齒列의 틈은 食物殘滓의 絕好의 腐敗處가되고 口腔內의溫度는 또 黴菌의 繁殖을 도웁는것입니다

만일 음식찌거이가 黴菌때문에 腐敗하면 어떠케될것입니까 우선첫재로 乳酸이 發生해서 上圖에 보이는바와가티 象牙質의 石灰鹽을 녹이고 만일葡萄狀球菌과 連鎖狀球菌이잇스면 (이것은 クラブ齒磨配合의 구로-루갈바구로-루及 요-도치모-루로 卽時 死滅합니다) 齒의 膠質이녹여저서 구녁이 뚤려집니다 그러고저 侵蝕이 象牙質에 미치면 寒熱에 刺戟되기쉽고 放置해두면 結局齒髓를 侵犯하고 짜릿짜릿아픈 齒髓炎과 齒根膜炎、나빠지면 齒槽膿漏가됩니다

이러케해서 되는虫齒의 豫防에는 아모래도 殺菌淸掃力이確實한 齒磨의選擇이 必要함을아시겟지요 그意味로 殺菌劑名과殺菌效力을 明白히한 藥用クラブ齒磨가 반드시 家庭에必要한 所以입니다